

좋은 인연으로 동산 가득 사랑의 꽃을 피워가는 아름다운 우리들의 이야기

초록연꽃

불기 2556년 / 2012(통원 13호)



사회복지법인
정토만일회

보리수동산

민들레

류시화

민들레 풀씨처럼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게
그렇게 세상의 강을 건널 수는 없을까

민들레가 나에게 가르쳐 주었네
슬프면 때로 슬피 울라고
그러면 민들레 풀씨처럼 가벼워진다고

슬픔은 왜
저만치 떨어져서 바라보면
슬프지 않은 것일까

민들레 풀씨처럼 얼마만큼의 거리를 갖고
그렇게 세상의 위를 떠다닐 수는 없을까
민들레가 나에게 가르쳐 주었네

슬프면 때로 슬피 울라고
그러면 민들레 풀씨처럼 가벼워진다고



02>> 햇살마루 /민들레	류시화
04>> 산중일기 /나만의 수행법	원장 승욱스님
05>> 발자취 /연혁, 아동 및 직원 현황	
06>> 처음처럼 /ㄱ.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김동우
ㄴ. 사랑합니다.....	이현설
08>> 공익요원수기 /소중한 깨달음	심규익
10>> 체험보고서1 /ㄱ. 용화사에서 신나는 풍물공연을 하고	이대웅
ㄴ. 즐거웠던 부곡와하이에에서의 하루	박유영
12>> 권리교육 프로그램 /ㄱ. 남해에서의 또 다른 체험.....	석원진
ㄴ. 권리캠프를 다녀와서	정다운
14>> 체험보고서2 /ㄱ. 4-H 캠프를 다녀와서	안덕현
ㄴ. 언제나 난 앞을 보기에 그 앞을 나아간다	김형택
17>> 명문대팸투어 /2011년 국내명문대학교 팸투어를 다녀와서	유승민
18>> 해외연수기1 /중국탐방기	오슬기
26>> 초록연시 /제13,14,15,16,17,18,19회 보리수백일장 수상작	박의렬, 김성환, 신경이, 이명진, 한승민, 석원진, 박정민, 신영미, 이수현, 양진우, 정다운, 서희원, 김희태, 유승민, 박경주, 박지우
34>> 부처님이야기 /수보리	원각스님
36>> 체험보고서3 /ㄱ. 내 생애 잊지 못할 거울캠프	김광석
ㄴ. 올 해의 설을 동산에서 맞이하면서	한승민
38>> 해외연수기2 /앙코르제국의 나라 캄보디아.....	김지인
43>> 건강상식 /당근의 효능	영양사 김은정
44>> 보리수동산의 이모저모	
47>> 후원해주신 분들	
57>> 나눔의 행복(해피빈, 이마트)	
59>> 도움주신 분들(광고)	
62>> 예 · 결산보고	
63>> 사랑의 후원보내기, 후원안내	

나만의 수행법

보리수동산 원장 승욱스님



역 앞에서 한 아이를 본 것이 인연이 되어 시작한 일이 일생의 업이 되었다.
그냥 지나쳐도 되었지만 그러고 싶지가 않은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마냥 신기하고 도와주고 싶고 무언가 해주고 싶었다.

승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한번쯤 망설이게 되는 일이었지만, 나의
수행과 배움에 전념해야했지만, 이 일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지는 것은 이 또한 인연의
모습이라 여기며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왔다.

그로부터 아들 50명, 딸 50명을 길러보겠다는 신념으로 누군가 아이 키우기 힘들다는 소리만 들어
도 인연인가보다 여기며 받아들이기를 이제 70여명이라는 숫자가 넘어가고 보니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돌아보게 한다.

청련암이란 작은 암자에서 비롯된 인연이 보리수동산으로 옮겨오며 할 수 있다는 신념이 만들어
낸 결과라 여겨져 뿌듯한 순간도 있다.

하지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말처럼 하나들 늘어나며 이런 일 저런 일 겪을 때마
다 잘하고 있나하는 염려도 일 때가 많았다.

그러다가도 해맑게 웃는 아이들의 얼굴을 마주할 때면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하고 마음을
가다듬게 되었다.

보리수동산이 법인 인가 후 5개월 만에 신고하고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처음엔 시설을 갖추기 위해 아이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아껴주고 헌신할 인재를 채용하
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지내온 시간들을 되돌아본다. 때론 삼고초려의 마음으로 찾아가 도와달라고 애
원도 해보고 이리저리 이웃에 알려져 면접도 보면서 사람을 수용한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힘든
일임을 새삼 느끼며 지내온 시간들이었다.

그리고 부족한 제원을 마련하기 위해 찾아다니며 후원도 받고 개원소식을 접하고 찾아오는 분들
을 맞이하며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고,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겼다.

되돌아보면 그때가 나에겐 많은 배움의 순간이고 수행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여겨지기도 한다.

승려로서의 삶이란 확철대오의 정신으로 전념하며 살아도 제대로 깨닫기가 힘든 삶이지만 나는
부처님의 인연법을 생각하며 자신에 맞는 일과 수행법을 찾아가는 것도 수행의 일부라 여겼기에 지
금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날까지 그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할 것이다.

삶의 의미를 여기서 찾으며 말이다.

이것이 나만의 수행법이기에...



보리수동산 연혁 · 아동현황

보리수동산연혁

1976년	경남 고성 옥천사	청연암에서 아동보호 시작(주지승옥스님)
2000년 06월 15일		“구” 좌련분교 임대(향 후 5년간)
2002년 08월 26일		사회복지법인 정도만일회 설립 허가
2002년 10월 24일		“구” 좌련분교 매입
2003년 01월 13일		아동복지시설 신고(보리수동산)
2003년 07월 20일		카페 1주년 행사
2003년 12월 16일		창원전문대학 산,학 협동 협약식
2003년 12월 27일		송년의 밤 행사(해님이 밤)
2004년 07월 18일		카페 2주년 행사
2004년 08월 16일		백두대간 산행
2004년 12월 31일		송년의 밤 행사
2005년 05월 08일		어버이날 행사(지역 어르신)
2005년 07월 17일		카페 3주년 행사
2005년 08월 03일		여름불교학교(4박5일)
2005년 10월 22일		아름다운 사람이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
2006년 07월 08일		봉림중학교&보리수동산 자매결연
2006년 07월 23일		보리수동산 정토관 준공식
2006년 12월 16일		송년의 밤 행사(꿈+희망=행복)
2007년 05월 03일		창원삼정자초등학교&보리수동산 자매결연
2007년 07월 21일		거성실업&보리수동산 자매결연
2007년 10월 14일		카페 4주년&가을체육대회 행사
2008년 03월 01일		안양원 중축 중고생 입실
2008년 12월 13일		송년음악회
2009년 09월 16일		경남FC&보리수동산 경남FC U-15 고성 축구 클럽 창단식
2009년 12월 26일		송년의 밤 행사
2010년 10월 09일		사랑나눔음악회
2011년 10월 09일		2011 꿈이 무르익는 가을 축제 한마당
2011년 10월 22일~23일		2011 보리수동산& JTS “꿈, 희망 캠프”
2012년 01월 28일		the큰병원 보리수동산 자매결연 협약식

참 좋은 연연입니다.

아동현황

연령 구분	미취학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	기타	계
남	3	12	13	20	2		50
여	1	3	5	5	·		14
계	4	15	18	25	2		64

직원현황

직책 구분	원 장	국장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상담지도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자립전담요원	계
남	1	1		4					1	7
여			1	9	1	1	1	1		14
계	1	1	1	13	1	1	1	1	1	21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글 김동우 선생님

보리수동산과 참 좋은 인연을 맺은 지 두 달이 된 새내기 선생님 김동우입니다.
올해 사회복지과를 졸업하고, 아직 서투르고 배울 것이 많은 저에게 선생님이라
고 불러주는 아이들에게 고맙고 미안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나의 말을 잘 들어줄까? 나의 지도를 잘 수용할까? 하는 의문을 가지며
아이들 지도에 대한 부담감과 걱정이 없었다면 거짓일 것입니다.

아이들과 첫 만남은 정말 떨리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저와 같이 초임 선생님에게 첫 아이
들과의 만남은 그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설렘이었습니니다.

아이들은 저에게 맑은 눈빛으로 미소를 한가득 안고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라는 인사를 하며
새로 온 저를 마치 친 형처럼 반겨주던 첫 만남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고 서먹하고 어색해 있는 저에게 먼저 따뜻한 손과 마음의 문을 열어
주던 아이들의 맑은 표정은 아직도 제 가슴 속에 생생이 기억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인사는 저의
무거웠던 걱정과 고민을 내려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이들의 깊숙한 곳의 마음의 상처까지 따뜻하게 보듬어 주자는 신념을 가지고 온 저에게 오히려 아
이들이 먼저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지도한다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아이들과 의견이 안
맞기도 하고, 아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잔소리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다 아이들과 거리감이 생긴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거리감은
저의 눈에 아이들을 맞추려고 했던 잣대임을 알았습니다.

아이들은 말 그대로 아이였습니다. 선생님의 사랑과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저의 잣대를 낮추고 아이들과 시선을 함께하니, 아이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아이들을 이해하니, 아이들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제가 무지해서 지금에서야 깨달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도와주
는 가족이 필요하단 사실을 말이죠.

앞으로 저의 신념은 조금 변화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아이들의 가족이 되
어 아이들 마음 속 하나 하나 사랑과 추억, 행복을 쌓아 주리라 생각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랑 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저는 아이들에게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사랑스럽게 행동 할 것
입니다. 언제나 편안히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큰 소리로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글 이현설 선생님



면접을 보고 합격했다고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11월 1일 설레는 마음으로 안고 보리수 동산에 첫 발을 내딛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동산의 가족이 된 지도 벌써 한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첫 출근 날 설레임과 긴장된 마음으로 정토큐에 들어서자마자 중학생처럼 보이는 한 남자아이가 밝은 미소를 나를 반겨주었는데 아직도 그 미소를 잊을 수가 없다. 그 아이가 건넌 인사로 긴장감이 사라졌다.

동산의 가족이 되고 한 달이라는 시간동안 숙식하며 일을 익혀나갔다. 처음엔 어떻게 지내나 걱정도 많이 했는데 금방 한 달이 지나간 것 같다. 동산에서 한 달 동안 지내면서 일을 배워나가니 아이들, 선생님들과도 빨리 친해질 수 있었고, 동산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

보리수동산 나예겐 아주 간절했고 멀게만 느껴지던 곳이었는데 지금 내가 보리수동산의 가족이 되어 있다는 게 너무나 영광이다.

아이들의 마음 얻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다. 아이들이 낮을 많이 가려서 다가가려하면 멀어지려해서 가까워지기가 많이 힘들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도 마음을 서서히 열기 시작했다.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때론 친구같이 때론 엄마같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지금 동산에서의 생활은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만 들어도 저절로 웃음이 난다. 그런 아이들의 웃음이 나에게 큰 힘이 되고 큰 활력소가 된다.

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깊은 생각을 해보게 된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겐 상처가 되지 않을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픔이 되진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행동 하나하나 신경써야 함을 새삼스럽게 한번 느껴본다. 앞으로 동산에서 내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 가족이라는 이름아래 아이들이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여느 가정집과 다름없이 우리 아이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 안아줘야하고 아이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보리수동산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된 아이들과 선생님들, 참 좋은 인연이다.

아직은 많이 서툴고 부족하지만 나날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예쁜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 선생님들과 예쁜 추억의 꽃을 하나하나 심어나가리라 다짐했다.

앞으로 펼쳐질 동산에서의 생활이 기대가 된다.

아직은 많이 서툴고 부족하지만 많이 배우고 익혀서 멋지고 좋은 선생님이 되리라 다짐한다.

마지막으로 꼭 명심하길 바라며 글 하나를 적어본다.

무시하는 말보다는
고맙다 라는 말로 하고
못한다 라는 말보다는
할 수 있다 라는 말로 하세요
모른다는 말보다는
나는 알고 싶어 라고 말로 하세요
오늘은 못해요 라는 말보다는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때문에 안돼요.. 라는 말보다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해보고
겨우 이것밖에 못했어 라는 말보다는
별써 이렇게 많이 했어 라는 말로 바꾸세요



소중한 깨달음

글 심규익



낮선 세상으로의 첫 발

2010년 2월 훈련소에 입소하여 한 달간의 훈련소 생활이 끝나갈 즈음 우리는 새로이 배치되어 근무하게 될 복무지에 대해 한창 기대와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어느 근무지가 편하고 쉽다더라’, ‘어디 근무지에는 너무 통제가 심하고 일도 많아서 힘들다더라’ 서로의 근무지에 관해 얘기하며 대학생들이 후 내딛게 될 낯선 세상에 두려워하고 있었다.

내가 근무하게 될 곳은 ‘보리수동산’, 사실 내가 20여년을 살아온 고향에 있는 곳이지만 나에게 처음 접해본 생소한 곳이었다. 아동복지시설이란 정보를 알았지만 나에게 복지시설은 멀고도 거리감 느껴지는 곳이었다. 그렇게 긴장과 불안 속에 첫 출근 전날 밤은 깊어 갔다.

새로운 생활

긴장 속에 드디어 첫 출근의 날이 밝았다. 아침 공익요원 담당자분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보리수동산. 폐교된 옛 좌편 분교 자리에 터를 잡은 보리수동산은 입구에서부터 아름다운 화단과 나무가 어우러진 광경으로 나를 맞아주었다.

동산의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새롭게 함께하게 된 나를 매우 반갑게 맞아주셨다. 사실 이전까지 짧은 나의 생각으로 아동복지시설 하면 형편이 어려운 집안의 아이들이 시설에 맡겨져 보호되는 곳이기엔 분위기가 어둡고 험악하지는 않을까, 아이들이 벗어나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사이는 매우 정다워 보였고, 아이들의 모습 속에는 활기가 넘쳤다. 아이들은 여느 또래 아이들처럼 말쑥도 피우고, 장난도 치고, 선생님들께 애교도 부렸는데, 이러한 모습은 나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주었다.

내가 하게 될 일들은 크게 행정업무보조와 시설관리, 후원물품 정리였다. 아이들만 잘 보살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처음 생각과 달리 시설에는 각종 서류업무와 넓은 시설들을 하루하루 관리하고 정리하는 등 일이 매우 많았다.

처음 몇 달은 일에 잘 적응하지 못해 실수도 많이 하고, 헤맸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선생님들의 친절한 지도와 아이들의 도움으로 차츰 일을 익혀 나갔다. 건물 내에 더러운 곳이 있으면 청소를 하고, 시설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매일 체크를 하며, 후원물품이나 기자재들을 정리했다. 서류업무가 많은 날이면 선생님들을 도와 사무실 일도 돕고,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기도 했다.

처음 몇 달이 지나 일이 몸에 익숙해질 무렵 내 마음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배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통해 복지시설을 가게 되면 하던 생각은 나보다 못한 사람 혹은 힘든 사람을 도우러 간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 생각은 내가 근무를 처음 시작했을 때까지 내 머리 속에 떠오르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너무나도 오히려 내가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다. 단순히 공부나 스펙을 쌓는 것을 넘어 동산에서의 생활을 통해 밖에서는 얻을 수 없는 많은 경험과 자산을 얻었다.

좋다고 만은 할 수 없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나보다 훨씬 나눔의 미덕을 잘 실천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많지 않은 용돈을 조금씩 조금씩 저금하여, 그 돈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 써달라며 전달했다. 이러한 모습을 보니 그 동안 항상 핑계와 변명으로 남을 위해 나누지 않았던 나의 모습이 창피해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자신의 형편이 좋지 않더라도 자신의 것을 나누어 남에게 도움을 주시는 너무나 고마운 후원자 분들, 다양한 아이들을 보살피 주시면서도 항상 아이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선생님들, 항상 밝은 모습으로 노력하여 성장하는 아이들, 언제나 아이들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원장님, 이분들은 나에게 남과 함께 나눔으로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알려주셨고, 서로를 사랑하며 아껴주는 마음씨를 보여주셨으며, 어떠한 대가도 없이 베푸는 내리사랑을 배울 수 있었다.

앞으로 한걸음

낮선 곳에 대한 두려움과 어색함, 아이들과의 첫 만남을 뒤로 한 채 달려온 지 어느덧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나는 보리수동산의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함께함으로써 너무나 소중한 것을 얻었다. 나는 단순히 공부를 더 많이 하거나 스펙을 쌓는 것만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었다. 나눔의 즐거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무조건적인 사랑 등 그 동안 내가 얻은 소중한 교훈은 앞으로의 내 인생에 큰 자산이 될 것 같다.

내가 받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에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제껏 부족한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주신 원장 스님과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다. 마지막으로 원장 스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을 빌어 내 마음을 모든 분들께 전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용화사에서 신나는 풍물공연을 하고

글 이대웅



오늘은 부산과 김해를 다녀왔다. 점심이 되기 전까지 부산에 도착해야 되는 우리는 새벽 5시에 일찍 일어나 예불을 하고 씻고 옷을 차려입었다. 아침으로는 우유와 빵을 먹었는데, 너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 먹지 못하고 남은 것은 보조가방에 챙겨 넣은 다음 부산-김해로 가는 관광버스를 타고 기다렸다. 부산에서는 용화사에 가서 풍물 공연을 하려고 가는 것이라 선생님들과 형들이 풍물 악기를 챙겨 버스에 넣고 부산으로 출발했다. 우리는 2시간에 걸쳐 버스를 타고 용화사에 도착했다.

부산 용화사에 도착했는데 풍물 공연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느라 잠이 와서 늦게 출발할 걸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꼭 참고 기다렸다.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아침 공양으로 밥을 먹고 난 뒤 11시 30분 정도까지 예불을 하고 기다렸다. 항상 동산에서만 예불을 했는데 새로운 곳에서 예불을 하니 신기하고 느낌이 새로웠다. 용화사는 옥천사보다 작아서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았다.

그렇게 시간을 기다린 뒤 드디어 형들의 풍물 공연이 시작되었다. 시민들은 모두 즐겁게 공연을 봐주었고 호응을 해주었다. 함께 춤추시는 분들도 계시고 소리도 질러주셨다. 풍물 공연 시작 전에는 장난을 치고 놀던 형들이지만 공연을 시작하자 형·누나들은 정말 열심히 공연을 했다. 형들이 너무 잘해서 즐거워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니 형들이 자랑스러웠고, 나도 풍물 연습을 열심히 해서 형들처럼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풍물 공연을 마친 뒤 우리는 김해에 봉화 마을로 출발했다. 봉화 마을은 노무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곳이었다. 나는 제일 먼저 노무현 대통령이 사셨던 예전 집으로 구경을 갔다. 노무현 대통령의 옛날 집을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사진과 묘를 보니 너무 슬펐다. 항상 시민들에게 잘 해주셨는데 산에서 떨어져 세상을 떠나시니 마음이 아프고 울고 싶었다.

그리고 난 뒤 대통령의 묘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사람들이 덩굴에 적어 놓은 좋은 글이 많이 있었다. 나도 대통령님을 위해 좋은 글을 적고 싶었는데 이미 사람들이 좋은 것을 다 써버려서 내가 쓸게 없었다. 내가 더 크면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글들보다 훨씬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말 하루가 눈깜박할 사이에 지나갈 정도로 재밌었고 신나던 날이었다.



즐거웠던 부곡하와이에서의 하루

글 박유영



오늘은 부곡 하와이로 눈썰매를 타러 가기로 한 날이다. 부곡 하와이에 간다는 소릴 들었을 때가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가게 되니 더 실감이 나고 마음이 꼭 붕 떠있는 느낌이었다. 하얀 눈 위를 나는 생각도 해보고 사부작 사부작 걷는 상상을 하며 부곡 하와이 눈썰매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속에 가득 안고 버스에 올라 출발 하였다. 근데 눈썰매장으로 가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다. 2시간이나 걸리니 말이다. 2시간이면 썰매를 몇 번이고 더 탈 수 있을 텐데 말이다. 마음속으로 빨리 도착하길 바라며 달리는 창밖 풍경을 보며 왔다. 드디어 부곡 하와이에 도착하였고 지인 엄마랑 함께 처음 눈썰매 위에 올라앉았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미났다. 뽕뽕 눈 위를 썰매를 타고 내려가는 기분은 최고였다. 얼굴에 찰싹찰싹 달라붙는 바람에 눈이 시리기도 했고 코가 발갛게 돌아올랐었지만 말이다. 눈썰매를 타고 내려올 때 주영이 언니와 수정이 언니를 만났다. 언니들과 만나서 같이 눈썰매를 탔다. 계속 타도 또 타고 싶고 그랬다. 신나게 눈썰매를 타다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었다. 우린 이름이 예쁜 진달래 식당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다. 점심을 다 먹고 나서 이번엔 눈썰매가 아닌 놀이기구를 언니들과 함께 타러 다니게 되었다. 놀이기구는 회전목마도 타고 그네 같이 생긴 시소를 탔었다.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줄을 서는 동안 언니들과 이것도 타보고 저것도 타보자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였다. 회전목마의 말이 빠르게 돌아가지는 않아서 다행이었고 재미났다. 만약 빠르게 돌아갔다면 무서워서 못 탔을 것이다. 놀이기구까지 잘 타고 우린 온천에 가서 목욕을 하게 되었다. 수민이 언니와 엄마가 와서 내 몸을 씻는 것을 도와주었다. 몸을 깨끗이 하고 밖으로 나왔을 때 기분이 너무나도 상쾌하고 개운하였다. 오늘 이렇게 부곡하와이에서 놀았던 것들을 기억하고 하루를 지내면서 우리에게 재미난 시간을 만들어 주신 봉사자님들에게 감사하다.

봉사자님~ 정말 즐거운 하루를 우릴 위해 힘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남해에서의 또 다른 체험

글 석원진



나는 8월1일부터 8월3일까지 2박3일로 남해에 아동권리학교 캠프에 참가하게 되었다. 나만이 아닌 6학년들 모두 캠프에 가게 되었다. 우리는 진주에 모여 다 같이 남해로 갔다. 이 캠프에 참가하게 된 학생은 모두 30명이었고, 선생님들은 일곱 분이셨다.

도착해서 먼저 강당으로 들어가 짐을 풀고 놀다가 입학식을 하고 조를 알려주셨다. 나와 다운이는 같이 3조가 되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조끼리 모여 조 이름, 조 구호를 정하고 각자 자기소개를 하였다. 우리 조는 조 이름이 ‘뽕동’ 이었다. 모두 정한 다음 권리교육을 받았다. 권리에겐 4가지가 있는데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이 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는 권리가 생존권이고, 우리가 배우거나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권리는 발달권, 누군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권리가 보호권, 우리의 생각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참여권이라고 한다고 가르쳐주셨다. 다음은 권리 침해 사례 그리기를 하였고, 쉬었다가 권리 T셔츠도 만들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체육대회를 하였는데 너무 재미있었다. 간식으로는 치킨을 먹었다. 숙소로 돌아가 씻고 꿈나라로 갔다. 다음 날 일찍 일어나 8시에 아침을 먹고 강당으로 가서 권리 퀴즈를 하였는데 우리 조는 많이 맞히지 못했지만 즐겁게 퀴즈를 풀었던 거 같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화력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다 같이 물놀이를 하러 갔다. 물장구를 치면서 미끄럼틀을 탔는데 빨랐지만 날아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바이킹도 타고 레프팅도 하러 갔다. 레프팅 하러 갔는데 구멍조끼를 입고 노를 받아 배를 들고 바다까지 들어갔는데 진흙이 많아서 발이 잘 빠지지 않았지만 무사히 레프팅을 마쳤다. 레프팅이 끝나고 씻은 후 강당에 모여 조별끼리 저녁을 먹고 레크레이션을 했다. 짝 만들기 게임과 글자 맞추기 게임을 하였고, 어둠컴컴해졌을 때 캠프과 이야기를 하러 갔다. 캠프파이어는 정말 재미있었다.

마지막 날,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다. 아침을 먹고 강당으로 가서 영화 ‘도토리집’을 1부, 2부로 보고 나서 문제를 내셨다. 소리를 지르며 3조를 외치는 동안 나의 목은 이미 쉬어있었다. 문제 맞추기 게임도 끝이 나고 스티커를 계산해서 상품을 받을 차례이다. 6조가 1등을 하고 우리조가 2등이 되었다. 상품은 문구세트였다. 선물을 다 받고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 2박3일 동안 정들었는데 헤어지려고 하니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었다. 눈물이 나오려 해서 억지로 꾹 참고 웃었다. 버스를 타고 사천대교를 건너 점심으로 냉면을 먹고 선생님들과 함께 추억으로 남길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영원히 간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이제는 처음 만났던 초록우산 건물로 들어가서 기다리면서 선생님들과 시간을 알차게 보냈다. 언젠가 다시 한번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즐거웠고, 선생님들이 영원히 내 마음과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권리 캠프를 다녀와서

글 정다운



아침부터 비가 주르륵 내리기 시작했다. 비가 와서 캠프 진행이 안 될 것 만 같았는데 그래도 걱정을 하면 그 생각이 실현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을 조금씩 조금씩 털어내었다. 아침 일찍 씻고 나서 나갈 준비를 하였다. 강선생님께서 보리수동산 봉고차를 이끌고 진주로 갔다. 진주 이마트로 가서 큰 관광버스로 갈아타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남해 한려 유스호스텔로 갔다. 가는 동안 선생님들이 과자를 주셔서 과자를 먹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게임도 하고 신나게 갔던 것 같다.

남해에 도착해서 강당으로 모였다. 입학식을 하고 조를 나누었는데 우리 조는 3조였다. 조를 정하고 조이름과 조 구호를 정했다. 우리조 이름은 '똥동'이었다. 최고의 사랑 명대사라서 우리도 최고의 조가 되기 위해 내가 생각해 낸 것이다. 조이름과 조 구호를 정한 다음 권리 T셔츠를 만들었다. 하얀 T셔츠에 물감으로 색을 칠했다. 만들고 나니 너무나 뿌듯했다. 그 다음 점심을 먹고 아동권리교육을 받았다. 음식, 물 등이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이므로 이것은 생존권에 해당한다. 보호권은 말 그대로 우리가 보호 받는 것이 보호권이다. 우리가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권리는 발달권이라 하고, 참여권은 우리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이다.

아동권리교육을 받은 다음 저녁을 먹고 체육대회를 하였다. 1, 2, 3조가 팀이고 4, 5, 6조가 팀이었다. 2시간 동안 모두 열심히 달리고 활동한 결과 1, 2, 3조가 속한 팀이 승리하였다. 우리는 정말 기뻐다. 체육대회가 끝나고 간식으로 치킨을 먹었다. 그런데 그 순간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정말 무섭게 내렸다. 비가 많이 내려 숙소로 이동하였다. 다음 날 아침을 먹고 권리퀴즈를 하였다. 아쉽게도 너무 많이 틀려버렸다. 권리 퀴즈를 다 하고 점심을 먹은 후 바람으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어 보았다. 정말 신기하였다. 자동차를 다 만들고 물놀이를 하러갔다. 수영도 하고 미끄럼틀도 타고 정말 재미있게 놀았다. 갯벌체험과 래프팅도 하러갔다. 갯벌체험은 민물이 밀려오고 있어서 못했고, 래프팅 만 했다. 수영도 하고 노도 젓고 정말 재미있었다. 래프팅을 끝낸 후 저녁을 먹고 레크레이션과 캠프파이어를 하였다. 레크레이션은 여러 아이들이 모여 재미있는 게임을 많이 했다. 레크레이션을 하고 캠프파이어를 했는데 나쁘고 슬픈 감정은 불에 다 태워 보내고 착하고 맑고 순수한 마음만 남겨두었다. 이렇게 둘쨃날 밤이 깊어갔다.

마지막 날 아침을 먹고 짐을 챙기고 강당으로 모여 영화감상을 하고 느낀 점을 발표했다. 그 다음 졸업식 및 수여식을 하고 남해에서 진주를 거쳐 보리수로 왔다. 정말 보람 있고 알찬 2박 3일이었다.



고성고 4-H 캠프를 다녀와서...

글 안덕현



4-H 담당선생님께서 학교에서 보내주는 캠프를 가서 4-H가 무엇을 하는지 4-H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고 열심히 배우고 공부를 하고 오라고 하셨다. 우리는 버스터미널에서 하이먼 청소년수련원까지 선생님 차를 타고 갔다. 도착한 후, 수련원 단체복을 받고 강당으로 가서 입재식을 시작했다. 우리는 이 캠프가 전국적인 행사인만큼 규모가 커서 긴장을 했다. 입재식에서 인사말 이야기를 듣다가 4-H 회장님께서 4-H 뜻을 가르쳐 주셨다.

그 뜻은 '1-H는 두뇌(Head), 2-H는 손(Hand), 3-H는 마음(Heart), 4-H는 건강(Health)' 라고 말씀 해주셨다. 그리고 여기서 얻은 명언은 "실천을 통하여 배운다." 라는 명언을 가르쳐 주셨다. 나는 이것이 바로 우리 큰스님이 내주신 4-H의 첫 번째 숙제라고 느꼈다. 우리는 골든 벨을 하기 위해서 1층 강당으로 내려갔다. 나는 아주 단순한 골든 벨 퀴즈 인 줄 알았다. 나는 차츰차츰 문제를 풀어나가다가 마지막 문제가 앞에서 탁 막혔다. 내가 틀린 문제는 낙타가 그냥 생수를 마시면 취할까? 아니면 소금물을 마시면 취할까? 라는 문제에 나는 소금물을 선택 했는데 틀려버린 것이었다. 그래서 사막을 가면 낙타들이 오아시스를 먹지 않고 사람들이 만드는 소금물만 먹는구나 생각을 했다. 나는 아주 아쉽게 마지막 문제에서 틀리고 만 것이었다. 나는 다른 애들이 잘하고 있나 보았는데 끝내 아무도 골든 벨을 못 울리고 모두 탈락을 해버려 아쉬운 마음으로 숙소로 들어갔다. 수련원 선생님들께서 나눠주신 간식을 먹고 숙소 친구들과 친구를 만들기 위해 하나둘씩 말을 꺼내 보았다. 우리는 차츰차츰 친구들과 친해지고 다음날 아침을 위해서 잠을 자기로 결정을 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원래 아침체조를 해야 하는데 어제 밤에 비가 오는 바람에 아침체조가 취소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더 잠을 잘 수가 있어서 행복했다. 우리는 아침밥을 먹으러 내려가다 어제 숙소에서 만났던 애들이랑 밥을 함께 먹고 첫 번째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일정에 있던 대로 전국 5가지 특산물 자랑이라고 적혀있었다.

나는 아주 많은 관심이 갔다. 우리나라엔 정말 많은 먹거리, 동물, 식물, 물건 등등 많이 있었다. 내가 아주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처음 보았던 오미자와 복분자다.

저녁밥을 먹고 나서 간단한 프로그램인 '친구와 친해지기'라는 프로그램도 했다. 나는 벌써 친구를 많이 사귀어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 저녁프로그램으로 전통악기 및 노래자랑도 했다, 나는 우리나라 전통악기로 가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다. 그리고 보리수동산 정길씨 형처럼 관악부 회원들이 나와서 엄청 맛있는 음악을 들려주고, 풍물을 치는 사람은 아주 작은 퍼포먼스를 보여 주었다. 다음 날 아



침, 우리는 마지막 회향시간을 가졌다. 새로 만난 친구들과 헤어져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래도 우리는 좋은 추억을 만들고 집으로 귀가를 하였다.

캠프를 다녀와서 느낀 점은,

우리는 처음에 캠프 일정표를 보고나서 재미없다고 느꼈지만,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모든 프로그램을 참석하였다. 처음에 4-H가 단순한 체험 활동인 줄 알았던 우리는 모든 프로그램에 4-H 뜻이 하나하나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참 신기했다.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전국 5가지 특산물 자랑이라는 프로그램이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특산물이 많았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은 특산물 및 식물이 나왔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래서 이 모든 특산물이 우리나라가 꾸준히 이어가고 안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옥수수 수염차는 수염이 아무런 용도도 필요 없을 줄 알았는데 수염차가 건강에 아주 참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옥수수 수염차를 끓여 먹으면 스트레스 해소, 원기 회복, 체력 회복 등 등에 있어서 매우 좋을 때문에 많이 마시라고 추천을 해주셨다. 내가 기대했던 체험은 복분자와 오미자 체험이었는데, 아주 만족한 체험이었다. 그리고 보리수동산 아이들처럼 풍물과 정갈이 형처럼 관악기 등등 공연도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이었다.

나는 캠프 기간 내내 즐거웠다. 그리고 나는 4-H가 단순한 4-H가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것인 줄 알았다. 아무튼 보리수동산 생활에서 아주 큰 도움과 추억이 되는 것 같고, 우리랑 친하게 지낸 애들도 추억이 하나둘씩 만들어 진 것 같았다. 이번이 나의 기억 속 추억 두번째가 되고, 이 캠프를 다른 친구들에게도 추천해 주고 싶다.





언제나 난 앞을 보기에 그 앞을 나아간다

글 김형택

내가 두드림존에 처음 받을 들인 것은 자격증을 따서 한 발이라도 조금씩 내 꿈을 향해서 걸어 가기위해서였다. 기대를 품고 시작한 두드림존에서의 프로그램은 잠들어 있던 내 집중력을 키워 주었고, 더욱이 내용이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다른 아이들보다 앞서 할 수 있었기에 재밌었고, 무엇보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알찬 내용으로 내가 지금 해야되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 두드림존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었고, 언제든지 다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두드림존에 참여하고 나서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Auto CAD 자격증이다. 지금은 이제 막 배운지 얼마되지 않아 책 한 권을 겨우 끝마쳤고, 기본을 배우고 있는 중이며 선을 이용하여 만드는 것이다.

될 수 있다면 A등급 자격증을 따고 싶고 3학년 때 즈음엔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선택해서 올라갈 예정이다. 내가 이렇게 자격증을 따고 노력해서 되고 싶은 것은 기능장이다. 기능장은 처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격증을 따서 기능사가 된 후 실무경력과 대학 졸업이란 조건이 걸려있었던 것 같다.

내가 기능장이 되기 위해서 계획해 놓은 것은 3학년 때 학교에서 실시하는 산학연계 맞춤형 학습을 할 것이다.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술을 쌓고 기술을 바탕으로 CEO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에서 중소기업과 협약을 맺어 그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을 익히게 하여 이어주는 역할을 해준다. 그 프로그램에서 내 기술을 만들어 10년 후 그 기술을 바탕으로 가는 장을 넘어 내가 직접 중소기업 CEO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알차게 살고 있다.



2011년 국내 명문대학교 팸투어에 다녀 와서

글 유승민



이번 학교에서 나와 김민지라는 학생이 선발되어 고성군에서 지원해주는 2011년 국내 명문대학교 팸투어 라는 캠프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캠프에서 우리는 캠프이름대로 서울의 명문대인 sky대(서울, 고려, 연세)를 가게 되었다. 캠프 첫날 아침에 남들보다 빨리 일어나서 집결 장소로 모였다. 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차를 타게 되었다. 처음 만난 친구들 중에 아는 친구도 두명 정도 있었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게 갈 수 있었다. 약 5시간 정도를 차안에서 보내고 도착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그런지 차안에서는 잠만 잤다.

도착해서 처음으로 간곳은 서울대학교였다. 서울대학교의 정문은 서울대학교 마크모양으로 되어있는데 마크는 '국립 서울 대학교'에서 딴 ㅊ, ㅌ, ㅍ 이 들어있다.

학교 안 캠퍼스에는 미술관, 박물관도 있었고, 학교에서 배웠던 규장각 한국학연구원도 있었다. 우리는 박물관부터 구경했다. 그곳은 한국의 다른 큰 박물관 못지않게 구성되어 있고, 소장 자료들도 많았다. 그리고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도 갔는데 그곳은 박물관처럼 전시해놓은 곳도 있고 연구원인 만큼 연구하는 곳도 있었다. 그리고 중앙 도서관 등 여러 건물을 지나서 서울대안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차를 타고 연세 대학교에 갔다.

연세 대학교에서는 우리들이 몇 명씩 조를 편성했다. 그리고 연세대 학생들이 몇 명 와서 한 명씩 한조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조끼리 돌아다니면서 교내를 구경하였다. 우리 조가 처음으로 간곳은 중앙 도서관이다.

연세 대학교에서는 중앙도서관을 중도라고 부르는데 옛날에 세워진 중앙도서관을 구중도, 새로 세워진 중앙도서관을 신 중도라고 했다. 그중 구 중도는 지금 공사 중 이어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 중도에 들어갔다.

신 중도는 책 읽는 곳, 교육받는 곳, 컴퓨터 하는 곳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규모도 컸다. 그리고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는 성당에도 갔다. 연세대는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꼭 드려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또 여러건물을 돌고 연세 대학교에서의 일정을 마쳤다. 그리고 차를 타고 고려 대학교에 갔다.

고려 대학교에서는 시간이 예상보다 지체되어 차를 타고 가면서 학교 전체를 구경하는 방법으로 관람했다. 일단 고려대학교는 다른 두 대학교보다 건물 모습이 더 예뻐다. 옛날 서양의 궁전이나 성당 같은 모습이 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를 설립한지 100년이 지나 기념으로 지은 100주년 기념관이라는 곳도 있었다. 그리고 또 차를 타고 학교 전체를 한 바퀴 돌면서 설명을 듣고 나서 고려 대학교를 나왔다. 그리고 숙소로 가는 길에 고려 대학교에서 선물도 하나씩 받았는데 고려 대학교 휴대폰 고리였다.

저녁은 서울 유스호스텔에서 먹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그리고 숙소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몇 명 사귄 수 있었다. 다음 날 일어나서 우리가 처음으로 간 곳은 새만금 방조제 라는 곳이었다. 간척사업을 하는 곳이었는데 그곳이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아주 넓은 방조제였다. 그리고 그런 간척사업지가 산업관광지로 쓰이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일정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갔다. 점심을 다 먹고 나로 우주 센터 우주과학관을 가려고 했지만 그때도 시간 때문에 가지 못하고 사극인 '이순신'의 촬영지를 갔다. 큰 성 이었다. 그 안에는 TV에서 보던 것들이 많이 있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를 보고 이번 캠프를 마치고 고성으로 돌아 왔다. 이번 캠프 너무 재미있었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어 좋았다.

나를 추천해주셔서 선발되게 해주신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도 정말 감사하고 이 캠프를 개최해주신 분들께도 정말 감사하다. 내년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더 가고 싶다.



중국탐방기

글 오슬기



5-19

내 생의 첫 해외여행의 장소는 중국이 되었다.

20명의 아이들과 희망 청소년 중국 탐방단을 결성하여 5월 19일 중국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올랐다. 처음이라는 것은 ‘처음’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설레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기분이 저절로 들뜨게 만들었다.

이륙하는 비행기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팬스레 흘러나오는 미소가 멈춰지지 않는다.

처음 중국에 도착해서 느낀 것은 ‘아, 공기가 탁하다.’였다. 주변은 노랗게 보이고, 숨이 턱턱 막히는 느낌이 한국의 공기가 그리워지게 만들었다.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차를 타고 위해로 이동했다. 건물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진짜 중국에 왔다는 것을 실감하게 했다. 중국 특유의 건물 방식과 한자로 된 간판들은 중국 영화의 한 장면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다. 가끔씩 한국어로 된 간판도 보였는데 벌써부터 반가워지는 마음이 들었다.

길게 쪽 뺨은 도로는 끝없이 계속되었다. 중국답게 넓으면서 길다고 해야 할까? 도로 위에는 세발자전거도 간간히 눈에 띄었다. 몇 시간을 달려도 계속 보이는 쪽 뺨은 길은 지나던 것은 확실히 기억에 남는다.

위해로 가는 중에 한국 기업체 두 곳을 방문했는데 STX와 GMB이다.

중국에도 많은 한국 기업체가 진출해 있으며 얼마든지 발전 가능한 곳이었다. 한국인과 중국인이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중국어의 필요성도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숙소는 산둥대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은 호텔이라는 영빈관 호텔이다. 이곳에서 한방에 두 명씩 배정받고 간단하게 집을 쏙 뒤 저녁을 먹으러 갔다. 유학생 식당이라고 산둥대학교 위해캠퍼스 유학생들이 아용하는 식당이었다. 혹시 음식이 입에 안 맞을까봐 걱정했지만 다행히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숙소로 돌아와 씻고 난 뒤 복도로 나왔을 때 몇 명이 모여 있었다. 아직까지도 어색한 사이였는데 같이 놀다보니 서먹함이 사라지고 친해질 수 있었다.

5-20

오늘은 산둥대학교 도서관에 갔다. 12층 높이의 건물, 그 앞에 펼쳐져 있는 넓은 광장에 감탄을 하며 실내에 들어섰다. 대학교의 도서관은 처음 가보기에 설레는 마음이었다. 더군다나 다른 나라에 있는 도서관이라니!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 산둥대학교의 전경을 보면서 설명을 들었다. 큼직큼



직하게 있는 여러 시설들, 정문 옆쪽으로 자리한 호수, 저멀리 보이는 바다까지 보이는 것이 가슴이 탁 트이면서 기분이 좋아졌다. 내려오면서 12층에 들렀는데 그곳에는 우리말로 되어있는 시설들이 있었다. 연애 시설도 있었는데 왠지 웃음이 났다.

다음에 간 곳은 대화당 학교이다. 이곳은 초, 중, 고가 함께 있는 학교이고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한다. 처음 가 본 곳은 이곳 학생들이 쓰는 기숙사였다. 초등학교생들이 쓰는 방이었는데 참 작고 아담했다. 그리고 딱 잠만 자기 좋은 곳 같았다. 그 다음으로는 급식소에 갔다. 청소를 해 깨끗한 바닥을 더럽히는 것이 조금 꺼림칙했지만 그냥 속으로만 미안해하기로 했다. 한 쪽 식탁에서 한국의 고추장을 발견했다. 아마 이곳에 온 유학생들의 자리 일 것이다. 그 다음은 체육관으로 갔다. 그곳은 공개 수업중인지 학부모가 모여서 아이들을 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씀에 맞춰 전환점까지 기어갔다오고 있었다. 아이들은 빠르게 땀을 흘리며 지나갔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엽게 보이던지! 경기였는지 매번 끝날 때 마다 이긴 아이의 손을 들어올렸다.

그 다음은 강당으로 갔다. 그곳 역시 공개 수업중이었으나 보다. 무대 위의 초등학교생들은 선생님이 질문하자 손을 들며 대답을 하는데 그 모습이 참 귀여워 보였다. 어린데도 포랑포랑하게 발표를 참 잘했다. 나중에 수업이 무슨 내용인지 물어보니까 수학 수업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교실을 갔는데 처음에 그곳을 보고 교무실인줄 알았다. 책상위에 책이 한가득 쌓여있고 공부할 자리도 없어 보였다. 그런데 교실이라고 해서 많이 경악했었다. 그래도 이곳은 좀 좋은 편이란 소릴 듣고 새삼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점심은 샤브샤브를 먹었다. 양고기를 먹는다는 소리에 살짝 기대를 해보았다. 처음에는 소고기가 나와서 양고기를 안 먹는구나 싶었는데 나중에 양고기가 나왔다. 샤브샤브 육수에 양고기를 넣고 있는데 먼저 먹어본 사람들의 입에서는 쓴소리가 나왔다. 설마...라며 먹어보는데 냄새부터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했다. 입에 넣었을 때의 느낌이란 한마디로 동물원의 양우리에 있는 느낌이었다. 그래도 계속 먹다보니 나름 먹을 만 했다.

점심을 먹고 난 뒤에는 장보고 유적지에 갔다. 이곳에는 적산 법화원부터 시작해서 장보고 기념비, 장보고 기념관 등 등이 있었다.

장보고 유적지를 보고 난 뒤에는 저녁을 먹으러 갔다. 그런데 차가 평소에 다니는 것보다 심각하게 막히는 것이었다. 나중에 물어보니 도로 한쪽을 공사하고 있는데 그 쪽 차선에서 다녀야 하는 차가 역주행으로 반대쪽 차선으로 와 차가 서로 대립하던 상황이라고 했다.

저녁은 창성그룹 이영호 사장님과 함께 했다. 두 테이블로 나뉘어 먹었는데 우리 쪽 테이블은 음식이 나오는 순간 금방 그릇이 비어버리는데 반대쪽은 음식이 남아돌았다. 맛있는데 왜 안 먹는 건지..... 저녁을 다 먹어갈 때 쯤 한사람씩 소개를 하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몇몇 애들이 약간 수준 높은 질문을 해서 속으로 살짝 놀라기도 했다. 내가 했던 질문들 중 하나는 중국에 와서 겪은 에피소드였다. 이영호 사장님이 처음에 왔을 때는 산적이 있었다고 한다. 차에 자체적으로 산적을 물리칠 도구까지 준비되어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산적과 조우하여 몇 십 분간 지체했던 적도 있다고 한다.





5-21

굉장히 힘들었지만 또한 굉장히 즐거웠던 하루였다.

한국어를 전공한 중국인 언니, 오빠들과 팀을 이루어 시내탐방을 했다. 그전에 중국어 교육을 받았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말들을 배웠는데 중국어는 성조 때문인지 발음하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재밌게 배웠다.

6명의 중국인 언니, 오빠들이 와서 조원을 뽑

았는데 조원은 제비뽑기로 뽑았다. 마지막까지 내 이름은 뽑히지 않았다. 그래서 4명씩 가는 조도 있겠다 싶었는데 아직 오지 않은 언니가 한 명 있다고 했다. 그 언니랑 나와 같이 이름이 안 불린 치원이가 마지막 7조가 되었다.

처음 간 곳은 행복의 문이었다. 어째서 행복의 문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행복의 문 전망대에 올라가려고 했지만 18위엔이란 거금 앞에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도로를 건널 때는 약간의 공포심을 간직한 채 건너야 했다. 뽕뽕 달리는 차 사이로 지나가려면 약간의 대담함도 필요하다.

우리가 점심을 먹으러 간 곳은 '선 꾸이 시아 빙'이었다. 그곳에는 대부분의 중국인 언니, 오빠들이 먼저 와 있었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 난 뒤 메뉴를 고르려 하는데 이곳에서는 원하는 것을 접시에 담아두고 끝으로 가 계산을 하는 것이었다.

점심을 먹고 나와 옆에 있는 백화점 건물에 들어섰다. 맨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구경해서 내려오다가 일층의 차(tea)매장에 갔다. 그곳에서 열심히 골라서 2가지를 샀다. 나중에 하나는 성환이의 손으로 넘어갔지만 말이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매장 아줌마에게 계산표를 끊어서 다른 곳에 가서 계산을 한 뒤 그 종이를 다시 들고 와야 했다. 원래 그런 건가? 아줌마랑 말은 잘 안 통하지만 몇 개 배운 중국어를 사용할 수는 있었다.

그 뒤 해상공원을 갈지 시장을 갈지 고민하다가 해상공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리기로 했다. 처음 해상공원에 도착했을 때 커다란 건물을 보고 감탄을 했다. '우와~ 저기가 해상공원이에요? 저기 가는 거죠?'라며 즐거워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대답은 아니라고 한다. 그럼..... 하면서 뒤돌아 본 곳이 해상공원이었다. 썰렁한 바람이 감도는 그곳을 보고 들떴던 기분이 순간 추락하면서 황당함을 느꼈었다. '정말 저곳이 해상공원? 진짜 아무것도 없네....그래도 이왕 온 김에 재밌게 놀자!' 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서 사진을 찍고 놀았다.

버스를 타고 돌아가려는데 1위엔 잔돈이 없어서 택시를 타기로 했다. 택시는 많이 지나갔으나 그 안에는 모두 사람이 타고 있었고 결국 우리는 한 정거장이나 걸어야 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결국 시장은 가지 못하게 되었다. '택시도 안 잡히고...'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우리 앞에 멈춰선 차가 천사처럼 느껴지는 기분이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는 우리의 상황에 처해 봐야 한다.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지만 대중 눈치로 보니 얼마 거리가 남지 않은 사람이었나 보다. 우리는 시장 대신 슈퍼마켓-이마트 같은 종류의-에 가기로 했다. 구경을 하고 먹거리



를 간단하게 사고 해산물 파는 아저씨랑 이야기도 나누었다. 슈퍼마켓과 산동대학교는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걸어갔다. 4시까지 유학생식당에 모여야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시간을 맞출 수 있었다. 시간을 맞추기 위해 열심히 뛰어서 간신히 맞출 수 있었다. 이제 시내탐방의 결과를 발표해야 했다. 약간의 준비 시간을 주었고 그 시간동안 형식은 자유롭게 해서 발표를 해야했다. 우리 조는 뭘 할까 고민 하다가 그냥 말로 하기로 했다. 순서는 중국인 언니, 오빠들의 가위바위보로 정해졌다. 설마 우리가 첫 번째로 걸리겠냐고 하지만 웬지 모르게 불안했고 결국은 첫 번째로 결정되었다. 이런 예감은 너무 잘 맞아서 탈이다. 제대로 준비를 안했고 첫 번째이고 하다 보니 두서없이 말했던 것 같다. 그래도 처음에 끝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서 좋았다. 다른 조는 짧은 시간에 어찌 그리 준비를 잘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특히나 기대했던 조는 은지 조인데 CF를 만들어 보여주겠다고 음악까지 준비했었다. 그러나 약간의 문제가 생겨 CF는 물 건너가 버렸다. 너무 아쉬운 일이었다.

발표 후에는 조별로 식사시간을 가졌다. 조용한 듯 시끄러운 듯 한 분위기로 맛있게 밥을 먹었다. 식사 후에는 레크레이션을 했다. 이번엔 또 조가 바뀐다. 정들었던 우리 조의 언니 숙령 언니는 다른 조가 되었고 우리 조에 류단단 언니와 이강녕 언니가 왔다. 우리 팀은 의욕은 넘쳤으나 인재가 없던 듯 하다.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괜찮다.

레크레이션이 끝나고 천문대로 갔다. 날씨가 흐려서 별을 보지는 못했다. 대신 천문대의 기기가 움직이는 볼 수 있었다. 날씨가 맑아 별을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테지만 기기가 움직이는 것을 본 것만으로도 만족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야경을 보고 산을 내려왔다.

5-22

정들었던 위해를 떠나 물의 도시 제남으로 가는 날이다. 여기까지 와서 호텔 앞 해수욕장을 가보지 않은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들은 모두 해수욕장으로 향했다. 여름이 아니라서 수영은 못했지만 모래밭에서 즐거운 게임을 하면서 놀았다. 어제의 레크레이션 팀을 이어서 했는데 우리 조는 왜 계속 지는 걸까? 모래밭 닭싸움, 씨름, 달리기 등 비록 이기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했다. 지면 어떻게 이기면 어때? 즐기면 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유학생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공항으로 떠났다.

공항에서 그동안 가이드를 해준 현지 언니와 헤어졌는데 많이 아쉬웠다.

제남까지는 국내선을 타고 갔다.

제남은 위해와는 다른 분위기의 도시였다. 위해보다 사람도 많고 건물도 컸다. 그리고 깨끗했다. 이층버스도 간간히 눈에 띄었다. 정말 가는 내내 눈요기 할 것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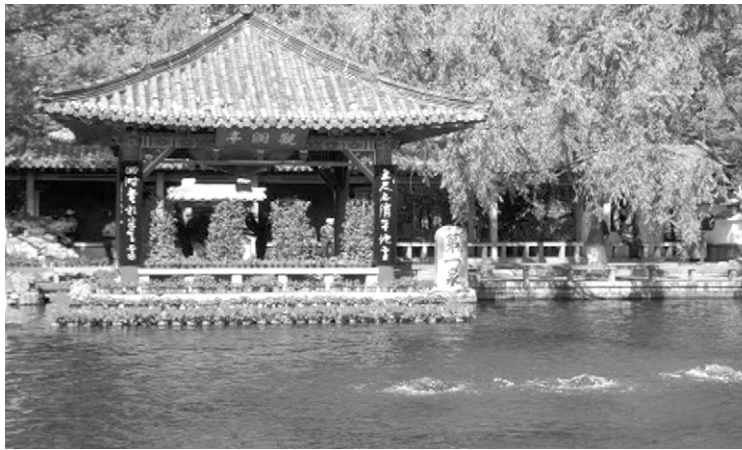
숙소에서 간단하게 짐을 풀고 저녁을 먹으러 갔다. 이번에 저녁을 먹으러 간 곳은 그동안 갔던 곳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곳이다. 풍기는 분위기는 약간 서양풍이었다. 사람도 대개 많았다. 음식은 셀프로 원하는 것을 가져다 먹고 메인 접시에는 고기를 놓아준다. 정체불명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들을 먹었지만 맛 하나는 끝내주게 맛있었다. 다음엔 또 오고 싶은 음식점이다. 무대에서 색소폰을 사람에게서 내가 아는 노래가 흘러나와 입으로 흥얼거리며 불렀었다. 정말 만족할 만큼 푸짐하게 먹었다. 내 위가 더 컸더라면 얼마든지 더 먹을 수 있었다.

저녁을 먹고 천성광장에 갔다. 분수 쇼를 보기 위해서이다. 아직 분수 쇼까지는 시간이 남았기에 주변을 돌아



다니며 구경했다. 인라인을 배우는 사람들, 재즈를 배우는 사람들, 물건 파는 사람, 관광객 등 등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어지는 곳이다. 지하상가에서 구경을 좀 하고 분수 쇼가 열리는 곳으로 왔다. 분수 쇼는 30분정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분수 쇼가 짧으면 좋을 것 같다. 너무 길어서 아쉬움이 남지 않는다.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것이 더 가치 있고 기억에도 잘 남을 텐데 말이다.

5-23



표돌천과 대명호를 갔다. 표돌천 공원은 17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처음에 들어가자 보이는 경치는 맑고 아름다웠다. 가이드 오빠의 설명을 들으면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안으로 들어가다가 어떤 중국인 한 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긴 말을 해서 엄청 당황했었다. 옆에 선생님한테 통역해 달라고 하니 내가 중국말로 말해서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줄 알았다고 한다.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구경했다. 3개의 섬이 솟아오르는 곳은 물이 아주 맑고 깨끗했다. 보면서 이름대로 표돌천 같다고 생각했다. 물개로 추정되는 동물도 보았다(물개가 맞는 것이겠지?). 이곳은 운치 있고 정말 멋진 곳이었다. 대명호로 갈 때는 배를 타고 갔다. 배를 타기 전에 만난 아줌마랑 간단한 대화를 하고 사진도 같이 찍었다. 외국에서는 이럴 수 있는 재미가 있어서 참 좋다. 배를 타고 가던 중 수위가 낮아지는 곳이 있다고 했다. 그곳은 정말 기억에 남는다. 앞뒤로 막아서 물을 천천히 빼 수위를 낮추는 것이었다. 대명호에서 예쁜 경치 사진도 많이 찍고 기분이 좋았다.

점심은 한국식으로 먹었다. 음식점 사장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었다. 이곳의 사장님이 한국말로 우리에게 인사를 했다. 가게를 둘러보니 아기자기한 장식도 있고 만화책도 있고 소설책도 있었다. 후식으로는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점심을 먹고 난 뒤에는 산둥 사범대학교의 박석재 교수님께 중국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그 외 중국에 공부하러 오기 위한 방법 등 말이다. 수제비누도 선물로 주셔서 기분이 좋다

저녁은 평소에 먹는 중국식대로 먹었다.

저녁을 먹고 바로 쉬는 줄 알았는데 박석재 교수님이 레크레이션을 준비하셨다고 한다. 공룡조, S조, 중당's 조, 크룡조로 구성되었고 게임은 3가지를 했다. 처음에는 자음에 맞는 동물이름을 적고 해당되는 동물의 점수를 받는 것이었다. 우리 S조는 운이 좋았는지 첫게임에서 1등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 게임인 윗놀이에서



는 꼴지를 했다. 점수는 하나도 못 얻었다. 중간에 우리 말을 한칸 안움직여준것 때문에 더 침울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때 왜 그렇게 한칸에 미련이 남았었는지 모르겠다. 세 번째 게임은 가위바위보였다. 열심히 가위바위보를 해서 초콜릿(나중에 알고 보니 껌)을 뺏어올 수 있었다. 우리 조가 가장 많이 모았다. 다행히 이겼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게임은 끝난것이 아니었다. 올인이 남아있었다. 가위바위보 단판승부로 초콜릿 몰아주기. 결국 우리 조는 졌고, 꼴등이 되었다. 하는 게임마다 지는 것 같다. 한 번쯤 이겨보고 싶는데.....

그렇게 레크레이션상금으로 꼴등한 우리 조는 100위엔을 받았다.

5-24

이 날은 평소보다 일찍 움직였다. 산을 올라야 하기 때문이다. 처음 간 곳은 버스를 타고 간 곳은 태산의 입구에 위치한 대묘이다. 대묘는 중국의 황제가 태산을 오르기 전 머물던 곳이다. 황제는 태산에 오르기 전 태산지신께 제를 올렸다고 한다.

태산은 계단으로 이루어져있어 다른 산보다 오르기에는 수월한 편이었다. 솔직히 산을 잘 타는 것은 아니라 걱정을 많이 했다. 조를 나누어 올라갔는데 올라가다 보니 조의 의미가 무색해진 것 같기도 하다. 처음 초반에는 힘을 내어 열심히 올랐다. 한 번 뒤편지면 끝없이 계속 뒤편지기에 앞쪽에서 갈려고 노력했다. 살짝 뒤편지는 듯 싶었지만 다른 애들이 도와줘서 뒤편지지 않고 올라올 수 있었다. 산을 오르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경치는 그런 것도 잊게 만들었다. 올라갈 때 보이는 계단은 끝도 없이 펼쳐져 한숨을 쉬게 만들었지만 뒤돌아 서서 내가 올라온 계단은 바라보면 '저 길을 내가 올라왔구나!' 라며 감동과 함께 뿌듯해졌다.

태산을 오르는 동안 우리를 보고 한귀르(한국인) 이라고 하는 소리가 자주 들려왔다. 우리가 입은 조끼를 보고 알아본 모양이다. 가끔 눈 마주치면 간단하게 인사도 주고 받았다. 어떤 중국인 아저씨한테는 토마토도 얻어 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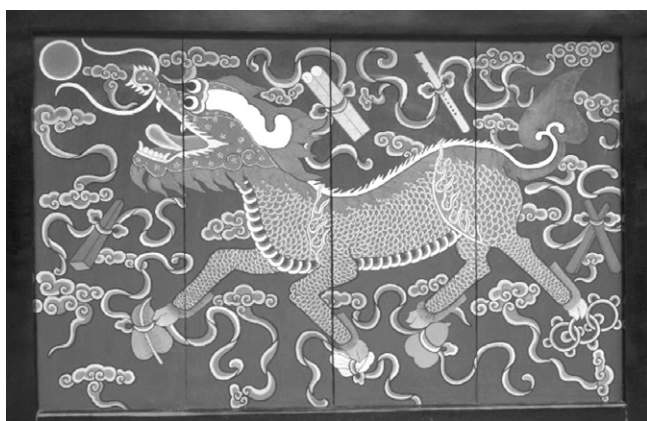
정상에 오르기 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얻어지는 헤프닝이 있기도 했지만.....

태산 정상에서 다 올라와서 사진만 계속 찍었다. 사진을 잘 찍지 않던 오빠들도 다영이 언니와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데 무뎌뎌하게 변한 모양이다.



태산을 내려올 때는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왔다. 반대쪽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도 했는데 몇 명은 같이 인사를 해주었다. 산 꼭대기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오는 것은 정말 재밌는 일이었다. 태산을 내려와서 공자의 도시 곡부로 향했다. 곡부 숙소에서 짐을 풀고 저녁을 먹은 뒤 곡부 시장에 나갔다.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동안 구경을 하면서 기념품을 샀다. 하지만 바가지를 써서 후회되기도 했지만 이미 지나간 일은 잊기로 했다. 다음에 잘하면 된다.

5-25



곡부에 온 다음날 공묘,공부,공림을 갔다.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에 걸어서갔다.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분은 조선족 사람인데 은근히 높은 사람을 많이 상대해 보았나 보다.

공묘는 공자를 모시는 사당이다. 황제만 쓸 수 있는 황금색을 쓸 수 있었고 황제의 숫자라는 9도 사용할 수 있었다. 게다가 자금성에서는 말까지 탈 수 있고! 새삼 공씨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낄 수 있었다. 공묘에는 대성전이라는 건

물이 있는데 곡부에서는 이 건물보다 높은 건물이 있으면 안된다고 한다.

공부는 공자의 후손들이 살던 곳이다.

한 뿌리에 5종류의 나무가 자라는 것도 봤다. 그 외 공씨의 여자들만 쓰던 방도 보았다.

별받는 곳도 보았다. 안내자분의 말씀에 따르면 그곳에서 별을 서게 하고 별을 달게 받으라는 의미로 사탕을 준다고 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것은 탐이란 동물이다. 이 육심쟁이 동물을 잊지말고 기억해 육심을 부리지 말자는 뜻으로 탐을 그려냈다고 했다.

공림은 조금 떨어져 있어 곡부 시내의 오픈카를 타고 갔다. 공림에서는 무신과 문신의 상(狀)과 공자의 무덤이 생각난다. 특히 공자의 무덤앞에서 아주 경건하게 기도를 하시던 분은 인상깊게 남았다.

점심은 호텔에서 먹고 청도로 이동했다. 약 5시간 정도가 걸렸다. 중간에 휴게소에 들렀는데 한국어로 '변소'라 적힌 것을 보고 웃음이 터져나왔다. 휴게소에 있는 가게에도 들어가봤다. 특이한 것도 있었다.

저녁은 한국식이었다. '외식 1번가'라는 이름을 가진 식당이었다. 아, 얼마만에 먹는 김치찌개인지 모르겠다. TV에는 한국방송을 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다 반가운 기분이었다.

저녁을 먹고 난 뒤에는 노래방에 갔다. 노래는 부르지 않았지만 옆에서 함께 즐겁게 놀았다. 숙소로 들어가기 전 베이징요트올림픽경기장에서 청도의 야경을 보고 들어갔다.





5-26

중국탐방의 마지막 날이다.
아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알쏭달쏭한 기분이다.

이 날의 처음이자 마지막 장
소는 소어산 공원이었다. 소어산
공원으로 가는 길이 좁아서 버스
가 잠시 주춤 거렸지만 기사 아
저씨가 실력이 있어서 그 좁은
길을 잘 빠져나왔다.

소어산 공원에서 저번에 곡부

에서 미처 사지 못한 선물을 사고 경치 구경을 했다.

3층 기념품관에서 밖으로 나와 주변을 보는데 역시 높은 곳에서 보는 경치는 상당히 좋았다.

소어산 공원에서 이제는 청도국제공항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어제의 노래방 최고자를 가르기 위해 다시 한 번 노래를 불렀다. 3명의 후보자가 노래를 부르는데 반주는 각자가 알아서, 혹은 무반주로 했다. 처음에 명진이가 윤도현이 부른 마법의 성을 부르고, 두 번째로 은영이가 해바라기를 불렀다. 세 번째로 두산이가 몽환의 숲을 부르려 했지만 우리의 자칭(?)타칭(?)잘생긴 오빠 허동원 박사님의 이상한 춤으로 인해 판이 깨지게 되었다. 그래서 두산이는 강민이와 하루하루를 불렀다.

영광의 자리는 열심히 한 두산이의 차지가 되었다. 상을 받지 못한 명진이의 절규소리를 들으며 청도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점심을 먹고 출국수속을 하면서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무럭무럭 자라났다.

비행기에서는 이번엔 창가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원래는 통로측 좌석이었었는데 오빠가 자리를 바꿔주어서이다. 앉아서 하늘의 모습만 잔뜩 찍었다.

이제 진짜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국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중국탐방은 나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었다. 그동안 중국이 놀라운 발전하고 있다고 해도 직접 보지 않았던 지라 실감할 수 없었고, 머리 한쪽 구석에는 중국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와서 본 중국은 많이 발전했고 발전중이었으며,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나라였다.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기가 맑은 곳도 있었고, 훌륭한 자연경관도 많이 있었다. 다시 한 번 기회가 된다면 또 다시 와보고 싶다.





13회장원 문수방 박의렬

떠돌이 물의 생활

떠돌이 물은
하늘에서 떨어져
땅으로 스며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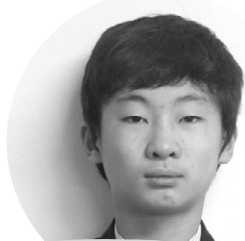
떠돌이 물은
식물의 뿌리를 통해
쏘~옥 빨려 들어갑니다.

떠돌이 물은
식물들 도와준 대가로
바깥 세상을 구경시켜 줍니다.

떠돌이 물은
곧
세상을 다합니다.

이렇게 떠돌이 물도
세상을 다하듯...

우리 인간도
세상을 다할 날이
오겠조.



13회차상 보현방 김성환

나

나는 바다 속의 물방울이다.
세상은 바다는 않지만 나는 모른다.
나는 바다 속의 물방울이다.

나는 길 위에 있는 쓰레기다.
세상은 길 위에 있는 돈을 반기지만
나는 반기지 않는다.
나는 길 위에 있는 쓰레기다.

나는 한 마리의 애벌레다.
세상은 내가 나비가 되면 반기지만
애벌레인 나는 싫어한다.
나는 많은 고통을 겪어내고 나비가
되어
세상이 나를 반기게 할 것이다.



13회차하 선재관 신경이

꿈

하루에도 몇 번씩 꿈을 꾼다.
10년 뒤 나의 모습은 어떨까?
10년 뒤 친구들의 모습은 어떨까?

계속해서 꿈을 꾸고 있으면
이 순간만은 울타리를 벗어나
더 큰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

비록 지금은 큰 꿈 속의 작은 나
이지만
꿈과 나의 현실이 일치하는 날을
바라며
오늘도 난 꿈을 꾸고 있다.





14회장원 안양원 **이명진**

꿈

지금 나의 꿈은
갈대처럼 흔들린다.

나는 그 갈대를
바위처럼 굳고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 나의 꿈은
태산처럼 높고 크기 때문에

천천히 한 걸음씩
태산을 오르는 내가 되어야겠다.



14회차하 보현방 **한승민**

사랑

어린 시절 부모와 헤어져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네
부모 사랑을 못 받으면
나뭇잎이 떨어지듯 외로움만 남네

봄이 되면 사람도 나무들도
사랑을 함께 나누고
모든 것들도 행복해질 수 있네.

한 아이를 돌보기 위해
모든 사람이 그 아이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네.

사랑으로 차가운 마음도 다 녹이면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네.





15회장원 선재관 석원진

개구리의 소개서

내 이름은 개구리
난 할 줄 아는 말 이라고
개굴 개굴 밖에.

내 이름은 개구리
난 할 줄 아는 운동 이라고
팔딱 팔딱 뛰는 거 밖에.

내 이름은 개구리
내가 갖고 있는 상이라고
개굴 개굴 합창 대회 상 밖에.

내 이름은 개구리
내가 졸업한 학교라고
유치원 밖에 없다.

재재깅 재재깅 흐르고 또 흘렀다.
멈추지 않는 시간 속에서 방향하던
때가 흘렀고,
시계와 같이 시간과 함께 있었던
때가 흘렀다.



15회차상 미룩방 박정민

개구리

폴짝 폴짝 뛰어다닌다.
활기차게 뛰어다닌다.

볼이 볼록해지면, 개구리
폴짝 뛰어다니면, 개구리

가지가지로 변한다.
변신 개구리인 것 같다.

내가 개구리였다면,
풍선처럼 볼록,
스프링처럼 폴짝,
뛰어다닐 것이다.



15회차하 선재관 신영미

아버지

언제나 묵묵히 나를 지켜주던
그 뒷모습이 멀어져가는데
난 눈물만 흐르네.

조금만 더 걸어가면
당신의 손을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아
다가가보지만 아쉬움만 흐르네.

미워했던 순간을 잊어주기를
우리 서로 아파했던 일을 기억하
지 않기를

마음만은 오직 당신뿐이기에
오늘도 당신을 기다립니다.



16회장원 지장방 김성환

시 17계

시간이 흐른다.
아주 어린 날, 동생과 놀던 때가 흐르고
아주 어린 날, 형을 따르던 때가 흐른다.

시간이 흐른다.
어린 시절, 마구 뛰놀던 때가 흐르고,
어린 시절, 아무 걱정 없던 때도 흐른다.

재깍 재깍 또다시 흐른다.
필요없는 공상에 빠져있던 때가 흐르고
처음 현실을 깨달았던 때도 흐른다.

재깍 재깍 끊임없이 흐른다.
지루한 일상을 반복했던 때가 흐르고
진정한 진실을 모르던 때가 흘렀다.

재깍 재깍 흐르고 또 흘렀다.
멈추지 않는 시간 속에서 방향하던 때가 흘렀고,
시계와 같이 시간과 함께 있었던 때가 흘렀다.



16회차상 보현방 이수현

고장난 시 17계

시계가 고장이 났다.
고쳐달라고 우는 시계

난 고쳐주려고
건전지를 달아주었다.

금세 눈에 빛을 달며
기분 좋다고 시계가 돌아간다.





16회차상 안양원 양진우

하루

하루... 24시간
우리는 많은 일을 한다.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하루"는
"즐거운 하루", "슬픈 하루"
"보람된 하루", "지겨운 하루"가 된다.

이렇게 많은 "하루"들이 모여
일주일, 한 달, 한 해를 이룬다.

우리의 삶은 이런 "하루"를
하나하나 채워가는
일기장인 것 같다.

나는 오늘도 "하루"를
채우기 위해 시간이라는 펜을 잡았다.



16회차상 문수방 정다운

나의 집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나는 이 집이 내게 같지 않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결코 내 집이 아닌 이 집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내가 살고 싶은 집
그 집은 어디 있을까.





17회장원 선재관 석원진

여름

무엇을 먹었길래
이렇게 더울까?

무엇을 먹길래
이렇게 뜨거울까?

무엇을 먹었는지도 모르는데
덥고도 뜨거운 여름



18회장원 선재관 신경이

그림자

늘 혼자인 나에게 다가와
친구가 되어 준 그 아이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심심할까봐
내 곁에 말없이 다가와 함께 있어준
그 아이가 참 좋았습니다.

반갑게 말을 걸어도
대답없이 묵묵히 제 뒤를 걷는
그 아이는
언제 모르게 쓸쓸해보였습니다.

그 아이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에 손을 뻗었을때
그 쓸쓸한 모습이 '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동안 나는
내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나봅니다.



18회차상 보현방 서희원

그림자

놀이 좋은 날 집 나오면
내 옆에 붙어 같이 놀자고
칭얼대는 친구가 요즘
잘 안 보인다.

맨날 pc방 가고, 노래방 가고,
영화관 가고.
요즘 그 친구 볼 시간이 없다.

언제 한번 날 좀으면
화짝 핀 단풍 그늘 아래
같이 단풍놀이 하자꾸나





18회차상 지장반 김희태

그림자

그림자는 착하다.
내가 하는 짓을 보고 그대로 배운다.

그림자는 착하다.
밝은 곳에서 뽀뽀하게 하는 것을
좋다고 따라하지만.

어두운 곳에선 몰래 하는 짓은
절대 따라하지 않고 도망가 버린다.



18회차하 보현방 유승민

그림자

내 뒤에는 항상
어머니가 그림자처럼 서 계신다.

내가 언제 어디에 있던
한걸음 뒤에는 항상
어머니가 서 계신다.

항상 그림자처럼
어머니는 내 뒤를 따라다니며
지켜보신다.

어머니는 그림자다.



19회 초등장원 선재관 석원진

운동회

땀 하면 달리고
땀 하면 굴리고

온 가족
응기종기 모여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드디어
점심 바꾸니 터지는 소리

와~ 와~ 와~
즐거운 운동회





19회 중등장원 선재관 박경주

도시락

도시락 아파트 1층에는 김밥이 있어.
참치김밥, 치즈김밥...

도시락 아파트 2층에는 김치가 있어.
나박김치, 총각김치...

도시락 아파트 3층에는 과일이 있어.
토마토, 사과, 포도...

지금은 점심 시간!
모두 모두 모여 가위바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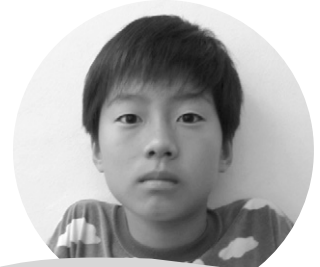
꼬르륵,
벅속 탐험자 선두로 뿔히지 않기
위해 애를 쓴다.



19회차상 보현방 한승민

소풍

어느 곳으로.
누구와 함께 가나.



19회차하 미륵방 박지우

운동회

햇볕 짙은 더운 날
청군 백군 모여 운동회를 한다.

쌀쌀한 가을.
고추잠자리와 함께 운동회를 한다.
벼도 살랑살랑 우리를 응원하다.

운동장은 우리들의 함성으로
가득 차고...
주전들은 열심히 달린다.
고추잠자리도 함께 달린다.





수보리

글 원각스님

이번 호에는 한국불교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금강반야바라밀경』, 『마야반야바라밀다심경』에서 등장하는 수보리(須菩提, Subhūti) 존자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의 십대제자로 수마나 상인의 아들이자 급고독 장자의 동생이다. 급고독 장자는 ‘기원정사’를 부처님께 건립해 드린 인물로 유명합니다. 수보리 존자는 급고독원의 개원식 때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출가하였으며 ‘자애와 함께하는 선’을 닦아서 아라한이 되었으며, 주로 숲에서 머물면서 평화롭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평화롭게 머무는 자들 가운데서 으뜸’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앙굿따라니까야 1권, p.118) 여기서 평화롭게 머문다는 뜻은 욕망 등의 번뇌들이 생겨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수보리 존자의 이러한 모습은 한국불자들에게는 생소한 것입니다. 이 보다는 앞서 언급되었던 불교의 핵심 교리인 ‘연기법’의 새로운 해석인 ‘공(空)의 이치’를 명확히 알고 있는 제자로 더욱 알려져 있습니다. 수보리가 부처님을 대하는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너무나 초월적으로 각색된 ‘공(空)’의 단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펴시려고 승가시국을 방문하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때 우발화색(優鉢華色) 비구니는 오늘 여래께서 염부제(閼浮提) 승가시의 못 가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사부대중들과 국왕과 대신과 온 나라 백성들이 모두 빠짐없이 나갈 것이다. 만일 내가 평상시의 모습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옳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제 전륜성왕의 형상으로 세존을 뵈러 가리라.’

우발화색 비구니는 곧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전륜성왕의 모습이 되어 7보를 두루 갖추었다. 7보란 이른바 윤보(輪寶) · 상보(象寶) · 마보(馬寶) · 주보(珠寶) · 옥녀보(玉女寶) · 전병보(典兵寶) · 전장보(典藏寶)이니, 이것을 7보라고 한다.

그 때 존자 수보리(須菩提)는 라열성(羅閱城)의 기사굴산 어느 산기슭에서 옷을 입고 있었다. 수보리는 오늘 세존께서 염부리 땅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부대중들이 빠짐없이 뵈러 갈 것이니 나도 지금 제때에 가서 여래께 문안하고 예배해야 하리라’고 생각하였다. 존자 수보리는 옷 깃기를 그만두고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무릎을 꿇었다. 그는 다시 이렇게 생각하였다.

‘저 여래의 형상에서 무엇이 세존인가? 눈 · 귀 · 코 · 입 · 몸 · 뜻이 그것인가? 찾아가 뵈려는 자도 또한 지(地) · 수(水) · 화(火) · 풍(風) 4대(大)로 되어있지 않은가? 일체 모든 법은 다 비고 고요하여 지을 것도 없고 지어진 것도 없다. 그것은 세존께서 계승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다.’

만일 부처님께 예배하려고 하거나
가장 높은 이들에게 예배하려 하거든
갖가지 종류의 음(陰)과 지(持)와 입(入)¹⁾
그것들은 모두 다 덧없다 관찰하라.

1) 5음(陰 : 蘊)과 18지(持 : 界)와 12입(入 : 處) 즉 3과(科)를 말한다. 인간과 나아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먼 옛날 과거의 부처님들과
또 미래에 오실 부처님도
지금 현재의 부처님처럼
이들은 모두 다 무상(無常)한 것이니라.

만일 부처님께 예배하러 하거든
지난 과거와 다가올 미래
그리고 지금 현재에 대해
공(空)한 법이라고 관찰하여라.

만일 부처님께 예배하러 하거든
지나간 과거와 다가올 미래
그리고 현재와 모든 부처님
나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여라.

그 속에는 나[我]도 없고 목숨[命]도 없으며 남[人]도 없다. 지을 것도 없고 지어진 것도 없으며,
형용할 가르침도 없고 가르치는 자도 없다. 모든 법은 비고 고요한데 어느 것이 나[我]인가? 나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없다. 나는 이제 진실한 법의 무더기²⁾에 귀의하리라.
그래서 존자 수보리는 도로 앉아 웃을 기뻐다.

만면 우발화색 비구니는 전륜성왕의 모습으로 부처님의 뵈었다.

비구니는 세존 앞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그 발에 예배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이제 가장 높은 분에게 예배합니다. 오늘 제일 먼저 뵈 수 있었던 저 우발화색 비구니는 바
로 여래의 제자입니다."
그 때 세존께서는 그 비구니를 위해 이런 계송을 말씀하셨다.

착한 업으로 먼저 예배했으니
그대가 최초라 해도 허물이 없겠지만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저 해탈문(解脫門)
이것이 부처님께 예배하는 이치이니라.

만일 부처님께 예배하러 한다면
장차 다가올 미래와 지나간 과거
모두 공한 법이라 관찰하여라.
그것이 부처님께 예배하는 이치이니라.³⁾

우리는 아직도 동양최대의 불상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부처님이라고 여기고 신행생활을 하고 있
지 않은지 점검해 볼 일입니다.

2) 원문은 '진법지취(眞法之聚)'이고 이는 곧 부처님의 법신(法身)을 말한다.

3) 일화의 전문(全文)은 『종일아함경 3』(한글대장경, 동국역경원, pp.130~161을 참고하세요



내생의 잊지 못 할 겨울 캠프

글 김광석



2011년 겨울, 2박 3일간의 스키캠프를 다녀왔다. 스키캠프 당일 날 아침 분주하게 움직여 동산을 떠나 마산종합운동장으로 출발하였다. 우리를 거기까지 태워다 주신 승규 선생님께서는 무사히 버스를 타고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다보며 배웅까지 해주셨다. 버스를 타고 한 시간 삼십분 가량을 더 달려 양산 에덴벨리 스키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에덴벨리 스키장은 다른 스키장들처럼 인공눈으로 덮인 곳이었지만 이박 삼일 간 지내었던 동안 나를 뽐냈던 곳이란 느낌이 든다. 여기에 도착하여서는 점심을 먹고 강당에서 스키복과 스키체험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맞추어 가지곤 배정받은 숙소로 향하여 같이입게 되었다.

스키를 타기위한 기초다지기 훈련이 이루어졌다. 스키를 신고 벗는 방법, 넘어지는 방법, 일어서는 방법, 걷는 법, 제동방법, 멈추는 법, 방향 바꾸는 방법 등을 말이다. 나는 그날 탄 스키가 처음 신고 타게 된 것이어서 긴장이 꽤 되긴 하였지만, 신고 벗기, A자를 그리며 멈추기, 방향 바꾸기와 같은 활동은 여러 번의 연습을 통해 쉽게 익힐 수 있었다. 기초다지기만으로 19일 첫 스키캠프 일정이 금방 끝났다. 그리곤 스키 타는 동안 즐거움에 배고픈 줄 몰랐던 배를 움켜쥐곤 저녁밥을 맛있게 먹었다. 그 뒤 강당에 모여 약 삼십분 가량 심폐소생술 강습을 받았으며 재미난 레크레이션 놀이도 하게 되었다. 오늘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준 듯하여 되게 의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승민이와 종수 나와 성환이 형이 짝이 되어 레크레이션 활동이 진행되었다. 가위바위보로 이긴 사람이 진 짝을 때리기 게임이 있었는데 그때 난 내가 이겼어도 성환이 형을 세계 때리지 않았지만 성환이 형이 이기자 날 세계 때려 살짝 아픈 감이 있었다. 그렇지만 나를 재미난 활동을 하게 되어 그 아픔을 금방 잊을 수 있었다. 레크레이션 놀이가 끝나고는 각방마다 장기자랑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 523호는 장기자랑에 나서지 않았지만 그만큼 다른 방들을 향해 박수 갈채를 보내주었다.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니 벌써 밤 9시가 되어 있었다. 방마다 간식을 지급받고선 방안 베란다에서 야간스키를 타는 사람들도 구경하고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하며 첫날 밤을 설레는 맘으로 지새웠다.

둘째날 아침 기상을 하여 8시경에 밥을 챙겨먹고 서는 어제처럼 스키복을 같이입고 눈 발 위를 거닐 준비를 하였다. 그전에 조 편성을 하고 슬로프에서 기본교육과 리프트 탑승법을 듣고 우리는 초급 슬로프를 타게 되었다. 첫 번째 리프트를 타고 올라와 초급슬로프를 타고 내려가는데 속도를 제어하는 기술이 부족하여 힘들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의 시도를 하다 보니 어느새 내 마음대로 방향도 바꿀 수 있었고 속도도 내며 멈추는 방법까지 익히게 되었다. 이때 하강자세로 타게 되니 더 스릴을 느낄 수 있었다. 점심 전 까지 자유스키로 시간을 보내고 점심을 먹고선 다시 강당에 모여 휴식시간을 가졌다. 이후에도 우린 자유 스키를 타게 되었는데 이번엔 에덴에서 아담 코스로 돌아왔다. 여기서 에덴은 초급슬로프, 아담은 중급슬로프라 보면 된다. 친구들과 레이스 게임도 할 수 있었고 S자를 크게 그리거나 작게 그리면서 스키장을 나다녔다. 자유스키시간을 가져서인지 어제보다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간 느낌이었다. 왜냐하면 질릴 새 없이 놀다보니 금방 저녁시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저녁을 먹을 때 즈 내일이면 이렇게 재미난 스키캠프가 끝나는 날이 되어 아쉬운 마음이 들게 되었다.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간까지 야간스키를 시원섭섭한 마음을 타게 되었다. 그래서인 둘째날 밤은 피곤한 몸 때문인지 서운한 마음과 함께 잠자리에 일찍 들게 되었다.

마지막 날 아침 일어났을 땐 더 우울하였지만 그 마음을 잊을 만큼 스키를 두 시간 삼십분 가량을 신나게 내달렸다. 스키장을 떠나올 때까지 스키를 타고 올 수 있었다. 이번 스키캠프동안 너무도 좋은 시간을 보내었고, 나의 추억거리로 영원이 남아 있을 것 같다.



올 해의 설을 동산에서 맞이하면서...

글 한승민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설날이 다가왔다. 설날을 기다리는 요 며칠 동안 매우 들떠있었다. 나는 동산에 남아 동산 가족들과 함께 설을 보내게 되었다. 11시가 좀 넘은 시간에 우린 강당으로 향하였다. 강당에서 함께 모여 차례지내기로 설을 맞이하였다. 우린 3명씩 앞으로 나가 조상님께 절을 올렸다. 차례를 끝마치고 남은 상위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식당에서 점심까지 마친 뒤 운동장에서 모여 전통놀이 대결을 펼쳤다. 팀은 청팀, 백팀으로 두 팀으로 나뉘어 경기가 이루어졌는데 자치기, 투호놀이, 축구경기, 팔씨름 등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들이 펼쳐졌다. 게임별로 상은 1등과 2등에게 같은 부상이 걸려 있었지만 개인전인 제기차기의 경우에는 컵라면 1박스라는 어마어마한 상이 걸렸었다. 상 때문인지는 몰라도 꽤 욕심이 나는 개인전 경기였다. 연습을 하게 되었는데 20개나 찼었다. 꽤 잘한 결과였다. 하지만 20개는 연습일 뿐 이었다. 실전에서는 결국 6개밖에 차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습 때는 잘 했었는데 실전에 그 실력이 나오지 못해 사실 아쉬움만 그득 하였다. 팀전 게임인 자치기를 하었는데 누군가 제일 멀리 보냈다. 그 누군가는 우리 나영 선생님이였다. 선생님의 그 모습을 보고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이럴수가... 궁금하여 던져본 막대기가 굉장히 멀리 까지 날아 가버렸다. 그 순간 내 스스로가 너무 뿌듯하여 내 입가에서 함박웃음이 끊이지 않던 것이 기억이 난다. 투호경기에서는 자치기만큼의 실력이 발휘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자치기는 1등이나 하였는데 투호는 등수에도 들어가지 못한 것이 지금 생각하면 제기 차기만큼이나 아쉽고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싶은 경기이다. 팀 게임은 무승부가 되어 버려 우린 축구 경기로 승부를 가리게 되었다. 우리 팀 형들과 친구들이 열심히 내 달려 주었지만 결과는 4:3으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지게 되었다. 그래도 모두가 격렬히 운동장에서 뛰는 팀 선수들을 응원했던 그 분위기가 즐거웠고 기억에 남는다.

올해의 첫 명절인 설날을 동산에 남아 동생들과 형과 누나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한 오늘의 기억들을 잘 간직하여 내년 설에도 동산 가족들과 함께 하길 바란다. 외로울 뻔 했던 설 명절을 동산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 때문에 정말 즐거웠던 날이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앙코르제국의 나라 캄보디아-

글 김지인



2012년 임진년 흑룡의 해를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로 해외 문화탐방 및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보리수동산의 자원봉사단체인 경남시민봉사여단에서 주최하는 이번 여행은 영천중 3학년 임정재와 함께 참가하였다. 처음 캄보디아 연수가 결정된 후 조금 실망스러운 마음에 내키지 않는 여행이 될 것 같았다. 해외여행이라는 들뜬 마음이 선진국을 선호하였는데 캄보디아라는 후진국이 결정되었을 때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마음 한 구석엔 해외만 나가면 좋다. 라는 생각으로 지원하여 아무런 생각 없이 “여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떠난 캄보디아. 나는 정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돈을 주고도 배울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해준 나의 문화 유산답사기의 이야기를 해볼까한다.

2012년 1월 10일

들뜬 마음으로 이번 여행에 함께 할 일행들을 만나러 마산역으로 출발하였다. 성인 8명과 아동 8명으로 총 16명이 이번 여행에 참가하였다. 몇 몇 분은 얼굴만 익힌 정도이지만 대부분 낯선 분들이라 어색하고 서먹한 첫 만남이 시작되었다. 김해공항에서 캄보디아 씨엠립까지 6시간의 비행으로 씨엠립 도착 현지 시각은 시 분 우리나라와 2시간 차이가 났다. 비행기에서 내려 아직은 낯선 캄보디아의 공기를 막 들이쉬려는 순간 더위와 습기가 온 몸으로 느껴졌다. 한 겨울인 우리나라에서 열대성 기후인 캄보디아의 계절은 극과 극으로 그제 서야 비로소 낯선 타지에 와 있다는 것이 체감되었다. 우리 일행은 3박 5일 동안의 친절 한 가이드가 되어주실 소장님의 안내를 따라 대기 중이던 버스에 올랐다. 저녁비행기를 타고 늦은 시각에 캄보디아에 도착했기 때문에 바로 숙소로 향하여 짐을 풀고, 내일부터 시작 될 삼일 간의 봉사활동을 위하여 각자 심기일전의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2012년 1월 11일

상쾌한 마음과 몸으로 호텔에서 일어나 조식을 먹고 만발의 준비를 마치고 버스에 올라타 봉사단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며 씨엠립 외곽 마을에 도착을 했다. 밤에 도착하여 풍경을 몰랐던 나는 도심을 빠져나오자 제대로 된 건축물은 단 하나 나라도 찾아보기 힘들고 마치 TV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나올법한 초원이 펼쳐져 있고 아무것도 없었다. 허허 벌판에 쓰레기와 풀들이 가득하고 집이라고는 나무로 지어진 집과 판잣집, 간혹 시멘트로 되어 있는 집을 볼 수 있었다. 거리의 사람들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 모습이 우리나라 6.25 전쟁이후의 모습인 것 같았다. 캄보디아는



전체 인구의 35%가 하루에 1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극빈층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한다. 마을에 도착하여 내리자마자 세 살부터 시작해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원달러를 외치며 구걸을 하거나 팔찌를 팔려고 달려들었다. 낯선 풍경에 당황하여 어쩔할 바를 몰랐다. 이장님 댁에 방문하여 현지인집의 일상과 생활상을 엿볼 수 있었다. 이층 나무로 지어진 집은 정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의심이 될 만큼 허름하였다. 쓰레기와 사람이 뒤엉켜 살고 있는 곳은 차마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풍경이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제일 큰 문제인 사람들이라 청소라는 개념이 없다고 하였다. 그곳에서 우리나라 봉사단체가 지어준 우물을 발견하였다. 그나마 씨엠립은 우리나라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 잘사는 편에 속한다고 한다. 씨엠립을 벗어난 지역은 정말로 안타까운 생활상이라고 하였다. 씨엠립은 그나마 하루에 두 끼라도 먹을 수 있지만 다른 지역은 한 끼도 먹기 힘든 실정이라고 한다. 또한 돈이 없으니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돈 벌이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가이드님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나라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음식을 먹기 전 하루 한 끼만 먹는 캄보디아의 아이들을 생각하며 남기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깨끗이 먹도록 당부하였다. 아이들은 계속해서 원달러를 외치며 간단한 우리나라 말도 구사하여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드나드는지 알 수 있었다. 휴먼지 속에 허름한 옷을 입고 동그란 눈으로 원달러를 외치는 아이들을 차마 외면할 수 없어 용돈을 주었다. 가이드님은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며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관광객들에게 구걸을 하며 사는 아이들은 나중에 학교도 가지 않은 채 평생 구걸을 하며 살아간다고 하였다. 다음은 이번 여행의 목적인 아름다운 세상을 방문하였다. 방문 전 사전연락이 되어 있지 않아 어렵게 방문허락을 받고 구호물품을 전달할 수 있었다. 총책임자인 정보원장님의 환대를 받으며 잠시 그간의 경과에 대해 말씀을 듣고 우리들은 아름다운세상 캄보디아센터의 시설들을 둘러보았다. 대한불교조계종 산하의 '실천불교승가회'가 주체가 되어 캄보디아에 'Lotus World'(연꽃세상이라는 의미)라는 현지 법인을 세우고 이 법인 주체로 종합사회복지센터인 BWC Project를 추진한 것이 지난 2004년 10월이라고 한다.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12,000평(36,000m²)의 넓은 부지를 20년 동안 무상임대하기로 협약을 맺고 2005년 6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약 10억의 예산을 투입, 마침내 2006년 9월에 완공식을 가졌다고 한다. 현재 80여명의 고아들을 돌보고 있는데 학교, 남녀 기숙사, 식당, 게스트 하우스 등 11개동의 건물과 넓은 운동장으로 아름다운 세상의 고아 및 빈민가의 어린이들을 보살피고 있다고 한다. 우리 보리수동산과 비교해 볼 때 각 동으로 이루어진 건물들이 정말 부러웠다. 남녀 기





숙사를 비롯해 동아리방, 도서관, 법당, 식당, 진료실 등 생활환경은 나의 눈높이로 보아도 꽤 훌륭해 보였다. 모든 건물들이 깔끔했으며 세심하게 애쓴 흔적들이 역력했다. 특히 넓은 잔디운동장은 눈이 부실만큼 아름다웠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불교가 이제 해외지원에 눈을 돌려 캄보디아에 이토록 훌륭한 시설을 세운 것 자체만으로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한국 불교의 힘을 보여주는 일일뿐더러 캄보디아 사회에 불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흐뭇해졌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캄보디아에 온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냥 사진만 찍고 가는 관광목적이라 당황스

럽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다음은 앙코르에서 최초로 지어진 사원이며 유일하게 산 위에 있는 사원으로 일몰 장소로 유명한 프놈바켕으로 향했다. 프놈바켕의 프놈은 ‘산, 언덕’이라는 뜻으로 이곳 씨엠립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원으로 제단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해질녘 일몰을 보기 위해 사원 땀땀이 세계 곳곳의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다. 이곳 프놈바켕에서 내려다본 경치는 나무들로 뿔뿔한 모습이었다. 유적지 발굴 전에는 이렇게 나무들로 뿔뿔하게 둘러 쌓였을 테니 천년동안 발견되지 못하고 잠들어 있을 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5개의 단층을 차례로 올라 마침내 산의 정상 위에 지어진 사원의 정상에 올랐다. 이미 고개를 든 해는 구름 사이에서 붉은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천이백년 전에 깔린 돌 위에 주저앉아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다. 희부연 하늘과 붉은 해, 아열대의 정글 그리고 허물어진 탑이 어울려 자아내는 분위기가 온몸의 힘을 뺏다. 문득 숲 사이로 신비롭게 솟아있는 앙코르와트로 눈길이 간다. 프놈 바켕은 주변의 유적지들을 높은 위치에서 조감할 수 있는 유일한 전망대이기도 하다. 피곤하고 힘든 일정이었지만 앙코르문화의 첫 유적지를 보고 내일이 더 기대되었다.

2012년 1월 12일

캄보디아에서 맞이하는 둘째 날 드디어 기다리는 문화탐방이 시작되었다. 앙코르 유적은 크메르 제국의 사원들로, 199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인류가 남긴 훌륭한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다. 캄보디아의 교통수단인 툭툭이를 타고 앙코르와트 문화탐방을 시작하였다. 웅장하고 거대한 건축물이 아주 섬세한 조각들로 가득하였다. 워낙 방대한 유적이 흩어져 있어 하루에 사원을 다 둘러보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만 가이드님의 속전속결로 탐방이 시작되었다. 사전에 미리 공부하고 가면 좋았을 걸 가이드님의 설명은 너무 방대하고 깊어 우리들이 이해하기엔 힘들었다. 캄보디아의 유적권 관광 세계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앙코르와트는 나의 고개를 가웃하게 만들만큼 실로 이해가 되지 않고 대단한 건축물이었다. 상상을 뛰어넘는 크기에 높이 그리고 세밀하고 아름다움 조각들은 나의 눈을 사로잡고 나의 손은 카메라를 놓을 수 없었다. 그 시대에 어떻게 큰 돌을 옮겼으며 정교한 불상들의 얼굴표정은 모두 다르게 조각되었는지 감탄이 절로 나왔다. 현대에도 50여년이 걸리는 건축을 30여년에 끝냈으며, 많고 큰 돌을 어떻게 다 옮겼는지 많은 의문이 있어 불가사의중 하나라고 하였다. 짧은 시간 안에 앙코르와트를 이해하기엔 너무나 아쉬웠다.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된다면 여유로움을 가지고 앙코르의 역사를 감상하고 싶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다음 유적지로 향하였다. 앙코르 제국의 마지막 수도였던 앙코르 톰(Angkor Thom)은 그 안에 여러 유적이 모여 단지를 이루고 있었다.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연결하는 무지개를 의미하는 남문을 통해 입장하는데, 내부에는 바온(Bayon)을 비롯해 코끼리 테라스, 문둥이 왕 테라스, 바푸온(Baphuon), 피미아나까스(Phimeanakas) 등이 있다. 특히 앙코르의 미소로 일컫는 바온의 사면상은 관세음보살의 얼굴이자, 그의 화신인 자야바르만 7세(Jayavaman VII)의 얼굴이라고 여겨지는데, 현재는 54개의 탑 중 36개만 남아 있다고 한다. 앙코르 유적 중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곳은 따 프롬(Ta Prohm)이다. 안젤리나 졸리가 출연한 영화 '툼 레이더(Tomb Rader)'의 촬영장으로도 유명한 이곳은 마치 폐허처럼 방치되어 있는 인상적인 사원이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자연이 어떻게 사원을 무너지게 했는지 그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글처럼 거대한 나무의 뿌리와 줄기가 사원의 기둥과 지붕을 감싸 안거나 무너뜨리고 있는 모습이 이색적이며, 파괴와 창조라는 자연의 이중성을 볼 수 있다. 자신의 가슴이 울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통곡의 방'도 빼놓을 수 없는 구경거리다. 이 밖에도 앙코르 유적 가운데 가장 많이 복원한 반띠아이 썸레(Banteay Samre), 가장 아름다운 사원으로 꼽히는 반띠아이 쓰레이(Banteay Srei) 등도 놓치면 아까운 유적들이다.

2012년 1월 13일

드디어 마지막 날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여정인 바라이 호수와 톤레삽 호수를 가기 위해 호텔을 나섰다. 캄보디아 씨엠립 북서쪽에 자리 잡은 인간이 만든 거대한 인공호수 바라이 호수는 남북으로 2km 동서로 8km 나 되는 동남아 최대의 인공 호수이다. 이 호수는 수리아바르만 1세 때 만든 세계 최대의 인공 호수이다. 이 호수에서 잡히는 어획량만 하더라도 연간 160만 톤에 이르며 캄보디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호수이다. 볼 것은 그다지 없었지만 인공 저수지 축조는 오늘날에도 대단한 사업인데 1천 년 전에 이러한 축조를 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다음은 캄보디아에서 앙코르와트 못지않게 유명한 곳인 톤레삽(Tonele Sap) 호수로 향하였다. 일명 '육지의 바다'로 불리는 이 거대한 호수는 아시아에서 최대 크기를 자랑한다. 온통 황토물이지만 물 반, 고기 반일 정도로 물고기가 많아서 영양보충이 어려운 캄보디아인에게 단백질 공급의 70%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니 이래저래 톤레삽 호수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곳이다. 톤레삽 호수는 길 양쪽에는 수상가옥들이 즐비하게 있고 습지에는 연꽃들이 아름답게 피어있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빈민층에 속하고 있으며 그나마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축복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 월남 패망때 배를 타고 나온 난민들이 정착할 곳이 없어 배위에서 생활하기 시작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변했다고 한다. 건기에는 경상도 정도의 크기인데 우기가 되면 그 면적이 네 배정도 불어난다고 한다. 수상가옥에 근접하면서 깜짝 놀라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세 살 정도 아이가 목에 뱀을 두르고 나타나 원달러를 외쳤다. 너무 놀라고 당황하면서도 이런 현실에 마음이 아팠다. 톤레삽 호수에는 군데군데 수상가옥들이 촌락을 이루고 있었다. 배위에 지붕을 씌우고, 그 안에서 생활하며 이 물에 불일도 보고, 세수도 하고, 또 먹기도 한다. 선상 가옥의 주민들 80%는 베트남에서 온 난민들이고, 나머지는 극빈계층의 캄보디아인들로 육지에서 집을 짓고 살 형편이 못돼 땅값 걱정 없는 호수에 집을 짓고 산다는 것. 삶의 방법은 정말 다양하다. 이렇게 사는 이들의 행복지수는 세계 3위라고 한다. 우리들의 잣대로 보면 정말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행복하다고 한다.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는 캄보디아인들 우리는 어떠한가! 이들보다 많이 가졌음에도 이들보다 행복하지 못하다. 잠시나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곳이다. 마지막 일정으로 캄보디아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볼 수 있는 왓트마이 사원으로 향하였다. 작은 킬링필드라고 불리며 킬링필드대학살 당시 씨엠립과 앙코르 유적 인근에서 학살된 사람들의 해골을 모아놓은 사원이다. 캄보디아에 가기 전에 킬링필드가 무엇인지 몰랐다. 세계사에 길이 남을 대량학살임에도 독일 나치정권의 유대인학살은 알았을지언정 캄보디아에 이런 슬픈 과거



가 있을 줄 몰랐다. 국민의 1/4(200만 명)이 학살당한사건, 그것도 다른 나라에 의해서가 아닌 동족간의 학살 처음 들었을 땐 우리민족이 서로 총칼을 겨누었던 걸 떠올렸지만 따로 담아두기로 했다. 관광객들이 모두 보는 곳에 유골을 방치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캄보디아는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 것이 현재 상황이라 현재 이 유골들을 하나하나 찾아줄 경제적 여력이 없다고 했다. 학살당한사람들은 아무 죄도 없는 무고한 시민이었다. 단지 정치를 함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것이다. 손이 부드러우면 입을 하지 않고 공부를 했으니 지식인이다 사형, 펜 혹은 있으면 공부를 했으니 지식인이다 사형, 영어를 알면 지식인이다 사형, 그냥 사형도 아니고 온갖 잔인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도 14살 소년, 소녀로 하여금 색출하게 했다. 아들, 딸에게 색출당하여 사형당한 사람도 많다고 한다. 세뇌교육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다시금 느꼈다.

일정이 모두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거대한 박쥐들이 서식하는 박쥐공원에서 열대수목들을 보며 싱그러운 휴식을 취하였다. 여행 전 설레고 긴장된 마음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여유롭고 평화로운 마음이 들었다. 이번 캄보디아 여행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참 대단하며 엄청난 성공을 이룬 의지의 민족이구나라는 자부심이 아닌 감사라는 것을 느꼈다. 큰 것부터 작은 것 모든 것에 감사하며 신발이 떨어졌어도 신발이 있는 것에 감사, 밥이 없어 라면을 먹어도 라면을 먹는 것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나라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나를 가다듬는 계기가 될 것 같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시 씨엠립 공항에 도착하였다. 우리나라 공항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좁고 사람들로 가득하여 시장통이 따로 없었다. 정신없이 출국심사를 마치고 정든 캄보디아와 안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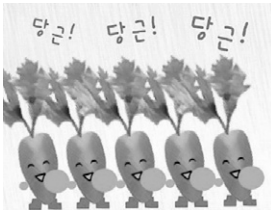
2012년 1월 14일

새벽 여섯시 김해공항에 도착하니 추운 날씨가 반갑게 나를 맞이하였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3박 5일간의 여정을 함께 하였던 정든 사람들과 다음을 기약하며 작별인사를 하였다. 특히 함께 웃고 지냈던 장난꾸러기 아이들의 따뜻한 모습을 뒤로 한 채 그리웠던 동산식구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당근의 효능

글 영양사 김은정



면역력을 높여주는 당근! 당근!

어떤 병이든 몸의 면역력이 강해야 예방도, 물리치기도 쉬운법이에요~
면역력을 키우려면 녹색 채소, 그 중에서도 당근을 먹어볼까요~

★당근은 눈에 좋아요~

당근의 비타민A는 시각회로에 관여해서 시력보호에도 도움이 되며, 각막이 건조해지는 안구건조증이 나 어두운 곳에서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 야맹증 등을 예방해줍니다.



★면역력강화에도 최고예요~

당근의 비타민A는 인체의 면역력을 강화하여 세균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준다. 피부 및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피부도 촉촉하고 매끄럽게 해주며 피로를 없애주고 잇몸질환을 예방해준다. 성장을 촉진하며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다이어트에도 좋아요~^^

우선 칼로리가 낮고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여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줍니다.

또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내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해줘 변비 예방에도 아주 좋아요~



★노화도 막아줘요~

(너무 먼 얘기같죠? 하지만 어릴때부터 관리해야해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항산화효과가 뛰어나 세포의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피를 맑게 해준다.

또 항암효과도 있어 꾸준히 섭취하면 좋다. 게다가 베타카로틴은 지용성비타민이어서 생으로 먹는 것보다 기름에 조리해서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진다. 단, 오래가열하면 비타민C가 파괴되므로 짧은 시간내에 조리하는 것이 좋으므로 저희 급식팀 식구들도 신경쓸게요~

우리 동산 친구들은 이렇게 몸에 좋은 채소를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 많이 걱정이예요~

지금부터라도 좋아하는 고기를 먹을 때 야채를 조금씩 곁들여 먹는 습관을 들여 건강하게 생활하기로 해요~~





2011년 10월 한국JTS와 보리수가 함께 1박 2일 동안 경주에서 역사문화캠프를 실시하여 신라 유적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왔습니다.



경주에서 우리 아이들이 옛 선비들의 예복을 입고 고운 한복을 입은 선생님께 열심히 전통차 예절을 배우고 있습니다.



설날에 정성껏 차린 음식들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조상님들께 차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무학산 둘레길을 선생님들과 중학생들이 함께 오르면서 정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리수동산의
이모저모



통영이마트에서 열리는 요리교실에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참가하여 캐릭터 케이크를 만들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이 되면 어김없이 두산중공업에서 어린이축제를 열어 우리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타며 재미난 하루를 보냅니다.



남해 지족계 마을에서 아이들과 봉사자님, 선생님들이 함께 갯벌에서 직접 조개도 캐고 작은 게도 잡으며 자연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보리수동산의
이모저모

참 좋은
인연입니다!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청소년전통예술 경연대회에서 우리 보리수풍물패는 작년 우승팀으로써 오프닝을 장식하며 축하 공연을 멋지게 하고 왔습니다.



매년 6월 6일, 현충일이면 어김없이 경남시민봉사여단 봉사자님들이 오셔서 아이들에게 재밌는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만들어 보람된 하루를 보냅니다.



고성군 일대 일손이 부족한 지역을 우리 선생님들과 중고생들이 주말을 맞이하여 농촌 일손 돕기를 하며 알찬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성군의 큰 행사인 소가야 문화제에 참여한 원영이~ 예쁜 꽃을 이마에 달고 풍물 경연 전에 기념 사진 한 장!



부곡하와이의 실내수영장에서 예쁘게 포즈를 잡고 있는 유영이와 청란이~



뜨거운 여름, 우리 중고생들과 선생님들이 경남에 있는 아동 시설들과 함께 일주일간 국토순례체험을 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맛있는 저녁 식사를 대접해주는 봉사자님들~



지난 8월, 1박2일간 진주 진양호에서 초등 캠프를 다녀왔어요. OECD 물 부족 국가 중 하나인 우리나라의 물의 심각성을 아이들에게 깨우치고자 물사랑 체험학습을 하였습니다.

❑ 보리수동산의 이모저모 ❑



10월 9일 보리수동산 가을 운동회가 한창인 모습, 사회자가 우리 승영이의 인터뷰를 따네요~



이옥자님 미용봉사와 함께 매달 꼭 꼭 아이들의 두발을 정리해주는 천사미용봉사단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매달 마지막주 일요일에 열리는 보리수 월말평가를 열심히 보고 있는 의철이~



연극 '그 남자 그 여자'를 관람 후 출연진들과 함께 사진 한 컷~!



연화원 주차장에서 신나게 인라인스케이트를 탄 후 모두 함께 모여 기념 사진 촬영~



정견방에서 불여사 가운선생님과 열심히 다도 수업 중인 아이들^^



선생님의 지도 아래 열심히 다도 예절을 배우고 있는 정민이.





일반후원금명단



2011년 1월~12월 일반후원금(법인) |

2011년 1월 최상태 윤복연 황정숙 김무립 정지숙 홍정숙 김현섭 김현주 이연식 홍순화 김용호 김혜숙 강옥환 김정계 배상림 이현숙 이웅호 양미도 방이호 김주성 최인선 김기태 구미자 윤순옥 심영란 윤효전 문미경 제낙을 허혜자 박은정 장원주 강순자 최선근 정익순 홍은정 김점식 김진영 장시경 배상림 장영수 최인미 주신옥 윤정수 최연경 박보영 김대수 박정숙 이희연 이상태 김보열 문경련 이향래 황종관 윤상일 최홍래 김현석 김인수 윤원준 김주애 하정자 김민강 정정자 김향숙 이준달 정영숙 이재동 이두래 문갑례 청련암 정정숙 불자교사회 심영숙 김수동 박국원 민영인 조정남 김연순 하부영 이미애 김순희 구정순 남정원 김석순 이영호 차기훈 이계숙 거성실업 성우근 이미영 윤정향 김보열 성양원 강정덕 한판현 대각씨앤디 이미경 조민주 심구나 박치훈 이상근 이상근 서도순 사랑자비 장연주 백영현 강갑순 김순점 정창민 한은주 정귀남 김말순 정숙향 최은지 박귀은 김석연 이영수 정미순 객선자 김재호 한선희 김재룡 장인옥 정정순 조점이 서진호 최연익 전역수 김진환 이순복 최영희 이종림 박종문 동아기업(이우중) 한학조 김옥화 청호건설㈜ 박종식 오유민 김인호 남정우 진순옥 손혜숙 박향진 제금자 황기석 서양순 김정옥 김태환 이한준 김민호 김정재 윤정자 변재범 온도석 최재섭 김중선 이성환 남태석 이숙이 이영자 고난주 박묘선 강필환 이창훈 김철영 권종영 강대균 이상홍 변인섭 허성란 문은자 양유경 이경순 김용진 안규철 박정숙 전부근 백장홍 김민강 양태심 정성종 윤석근 김수정 손윤기 허광도 김성호 김소연 김설영 성명숙 김태형 하윤수 조재영 김옥숙 황희석 이성인 이영미 노주연 장형선 김순권 김승선 (주)한국산업 안호순 강도식 조재경 명곡목재 박종근 전경도 이문희 안중연(한마음치과) 허귀임 이수미 조성원 조희나 이창식 김영완 이우중 동명특수강 정순자 강쌍범 이용성 강효상 이수연 박진아 김도일 송외순 양승원 김정숙 안미경 명정식 치마저고리 주동강 원찬섭 공인배 제성호 이용진 왕한석 안호순 권현옥 김재현 최숙자 김문기 이무제 이상백 김오수 임화연 황순자 팽정옥 박우진 강도식 이홍열 김선숙 항행자 이병선 김의민 김경현 최경녀 백금옥 이윤봉 양수미 정성종 최은경 문상필 백상호 윤숙열 강연옥 이재정 박현숙 이효석 이태현 홍세표 이우중 김희정 김병호 임막순 이영숙 박정현 노영도 박우찬 구나윤 허미라 박경자 최원옥 이경희 김민자 김희정 이민자 김계동 이봉자 안웅호 강성진 장순이 권옥순 정용훈 이지선 윤정숙 김순찬 박경식 황진두 김애숙 김주희 구영숙 윤라미 김해원 강미숙 김순애

2011년 2월 강옥환 심구나 이향래 홍정숙 김석연 이계순 이순복 동명특수강 강효상 정화원 허영형 이승미 김보열 김진영 장인옥 김무립 손윤기 김보열 김정계 진순옥 명정식 공인배 김재현 이태현 정정순 심영란 한학조 장영수 최은지 김정재 강순자 홍순화 김문기 노주현 최영숙 이윤봉 김민호 최상태 남태석 정지숙 주신옥 안규철 이영자 변재범 김수현 안중연(한마음치과) 최숙자 홍세표 허혜자 강현성 문미경 김옥화 방이호 김현주 강갑순 정미순 김옥순 박진아 이호길 양수미 김인수 강유순 서양순 이현숙 윤정향 강필환 백장홍 최재섭 명곡목재 이용진 정유섭 이우중 김설영 이계순 김향숙 문은자 이한준 김용진 온도석 박향진 조재경 황순자 윤지희 정성종 양태심 김재룡 남정원 김주성 허광도 문갑례 홍은정 김재호 조재영 이수미 항행자 김희정 임화연 한은주 문경련 이웅호 서진호 최연경 최영희 정정숙 객선자 한복남 윤숙열 임막순 권현옥 이상태 박재홍 김수정 윤상일 이두래 손혜숙 류석열 치마저고리 제성호 이병선 김병호 한명근 윤복연 이종림 황종관 이재동 김성호 정익순 전부근 이무제 김도일 강연옥 백상호 구영숙 김수동 김말순 정영숙 김현섭 최성근 김용호 김민강 황희석 왕한석 김의민 이영숙 이지선 정성숙 이숙이 최인미 양유경 최인선 권종영 김혜숙 강쌍범 장형선 이재정 이호길 맹길재 호전종합건설 조정남 민영인 윤정수 윤정자 박정숙 김점식 박종근 김순권 김경현 박정현 양승원 차기훈 이준달 이상근 박종식 이영수 강대균 김태형 주동강 팽정옥 박현숙 노영도 임영연 조민주 이상근 이미영 장원주 박정숙 객선자 이희연 이영미 정인숙 최경녀 안웅호 제금자 황기석 조점이 이영자 서도순 남정우 성명숙 하정자 이상백 남경남 이효석 박우찬 한판현 동아기업(이우중) 정숙향 김영순 최연익 성양원 김대수 이상홍 이상인 김승선 백금옥 강성진 이창훈 장시경 청호건설㈜ 김연순 배상림 김진환 구미자 이미경 이용성 박우진 이복기 정유섭 전역수 변인섭 거성실업 양미도 박귀은 김소연 김주애 정창민 전경도 (주)한국산업 김영재 구나윤 이경순 이계숙 박치훈 최홍래 고난주 이연식 강정덕 한선희 원찬섭 최운경 김시달 권옥순 성우근 황정숙 윤석근 하부영 이미애 박보영 윤원준 김중선(제이에스무역) 이문희 하상개 유상우 박경자 정정자 정귀남 김정옥 오유민 김현석 김순희 김철영 김순화 객선종 이창식 김귀현 정용훈 정용훈 박국원 제낙을 박은정 김인호 장연주 대각씨앤디 박종문 김오수 서영문 김화숙 최원옥 최원옥 이승미 이윤봉 양수미 정성종 임막순 백상호 이호길 노영도 박우찬 정유섭 권옥순 이지선 이태현 홍세표 이우중 김희정 김병호 이영숙 박정현 안웅호 강성진 구나윤 박경자 구영숙

2011년 3월 최상태 김보열 김정옥 오유민 김인호 최인선 김주애 선진 치마저고리 팽정옥 이창식 이민자 강옥환 심구나 윤석근 장원주 이미애 최성근 백장홍 진종택 이무제 김순권 박주홍 이혜경 심영란 장인옥 이영자 손윤기 김용진 이영수 김용호 이지민 황희석 이수미 김봉주 황진두 김진영 한학조 민영인 박은정 강순자 남정우 최영희 김태형 박종근 왕한석 이화선 김계동 배경조 남태석 양유경 김민호 김정재 박정숙 객선자 김점식 강쌍범 김연와 정병하 김애숙 이상태 서양순 성우근 홍정숙 김석연 윤정자 강갑순 하정자 주동강 남경남 최효심 이봉자 차기훈 문미경 김무립 최은지 김보열 김인수 권종영 김혜숙 이상백 박우진 권현옥 윤라미 조민주 허성란 정정숙 주신옥 안규철 강정덕 손혜숙 윤순옥 이영미 김금자 조성원 조희나 김해원 김수동 배상림 이현숙 이한준 김현주 정익순 박정숙 이희연 이성인 강도식 객선덕함 강미숙 호전종합건설 김향숙 이향래 윤정향 강필환 이순복 구미자 이상홍 이용성 이홍열 무주사 김순애 한은주 문경련 김옥화 방이호 김명순 진순옥 박향진 이미경 원찬섭 안호순 이원형 김필성 김재룡 황정숙 장영수 최연익 최연경 김설영 최재섭 정창민 이문희 박미영 박미영 윤현순 박재홍 남정원 김수정 하부영 문갑례 변재범 김석순 한선희 객선종 김선숙 안호순 심은숙 윤복연 김순점 정지숙 김현섭 이두래 김대수 대각씨앤디 김중선 임영연 (유)한국산업 김재현 가순출 황기석 김말순 이웅호 윤상일 김성호 홍순화 추형식 박종문 임화연 최운경 장홍점 우영숙 동아기업(이우중) 조정남 김주성 서진호 정혜숙 윤원준 황인철 제금자 강효상 김정숙 허영형 최유리 이성환 이준달 정영숙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2011년 1월~12월 일반후원금(법인)

허광도 성왕원 김철영 강예지 양채심 공인배 김승선 정화원 김태현 강현성 이상근 최인미 이재동 박보영 한판현 노연주 김순화 노주현 엄시흠 김금자 박태순 박진희 이수이 황종관 박종식 김순점 전부근 박국원 조재영 안종연 전득근 김성숙 김갑연 정중숙 류석열 이영자 윤정수 김진환 정정숙 강보민 조재경 장형선 강정웅 정인숙 문상필 변인섭 정수향 이미영 박귀은 김소연 김태순 하상용 ㈜동명특수강 박진아 공남이 조성진 안미경 이계숙 조점이 이상근 서도순 이연식 김재호 구경서 명정식 황순자 양승원 조필준 최영숙 장시경 청호건설 김연순 최홍래 이창훈 홍은정 구근희 김문기 제성호 안호순 조원익 최숙자 박국원 거성실업 양미모 허혜자 정미순 성명숙 조원형 김수현 김오수 박미영 김민자 허미라 정정자 박치훈 고난조 전억수 김순희 온도석 하상문 김옥순 김도일 안호순 김순찬 윤정숙 정귀남 제낙을 이경순 김현석 장연주 강대균 구다정 명곡목재 이용진 정인숙 김희정 윤지희 김주희 이병선 박현숙 김시달 한명근 홍세표 문상필 최숙자 박우찬 박경자 윤정숙 이승진 김현주 강연옥 최경녀 유상우 이승미 양수미 임막순 이영숙 강성진 정용훈 김민자 황진두 항행자 김익민 이호석 김귀현 김현주 이우중 김병호 박정현 정유섭 최원옥 김순찬 김애숙 윤지희 이재정 이복기 김화숙 이태현 정성종 백상호 노영도 구나윤 이지선 김희정 이봉자 윤숙열 김경현 김영재 맹길재 이윤봉 김희정 안미경 안영호 권옥순 구영숙 이민자 김주희 윤라미 강미숙 이도일 김순애 김필성 윤현순 심은숙 기순출 우영숙 최유리 박태순 김갑연 김양현 한상근 박계라 김무립

2011년 4월 강국환 박준상 최인미 윤정향 이미애 강정덕 김혜숙 이상백 김만식 최경녀 정유섭 가순출 김민강 정귀남 박치훈 이한준 김명순 김명희 이상홍 최중웅(법성) 박주홍 이복기 구나윤 우영숙 김진영 박국원 김무립 고난조 김현석 최영경 이미경 이영미 ㈜한국산업 김영재 허미라 최유리 심영란 김보열 이현숙 홍정숙 김진환 문갑례 한선희 이성인 남경남 김시달 권옥순 김갑연 배경조 정정자 윤석근 주신옥 이창훈 심규나 정창민 이용성 이창식 유상우 박경자 김양현 최상태 문미경 정영숙 이재동 성왕원 이소복 이마트단체지원금 원찬섭 박종태 김귀현 정용훈 한상근 이계순 남태석 김정옥 윤상일 남정우 진순옥 박종문 임영연 김선숙 김화숙 최원옥 법장사 이영자 장인옥 성우근 박귀은 이영수 변재범 제금자 이문희 정숙자 맹길재 이지선 박계라 이상태 서양순 정정순 박은정 박정숙 김철영 김종선 강호상 서영문 한명근 구영숙 김무립 한은주 황정숙 장영수 제낙을 윤정자 한판현 양채심 공인배 이홍렬 이승미 윤정숙 김민중 김재룡 문경련 윤정애 하부영 최성근 전부근 박옥림 임화연 조원익 이태현 김민자 우대영 박재홍 배상림 김수정 서도순 김정재 홍순화 ㈜동명특수강 노주현 조성진 이윤봉 김순찬 김점식 김수동 김향숙 황종관 최연익 김석연 김철영 명정식 안중연(한마음치과) 김경선 홍세표 김희정 김성호 차기훈 남정원 강기열 방이호 김보열 정의순 김문기 김오수 공남이 양수미 이민자 이경순 호전종합건설 김말순 청호건설(주) 오유민 최인선 윤원준 조재영 박진중 김금자 이우중 이해경 조민주 이숙이 양유경 김민호 김소연 김유식 조재경 제성호 안호순 정성종 이승진 황기석 류석열 허혜자 허광도 박보영 강영옥 김옥순 장형선 박미영 김희정 황진두 동아기업(이우중) 이춘달 이상근 김현섭 이연식 정정숙 명곡목재 황순자 조형규 문상필 김애숙 이영자 이상근 이미영 강상우 정미순 김태순 김수현 박진아 조건영 임막순 이봉자 변인섭 조정남 정지숙 강상윤 김순희 대각씨앤디 치마저고리 김도일 하상개 백상호 김주희 장시경 정수향 이웅호 김용진 장연주 이계순 이무재 김문기 윤숙열 최숙자 윤라미 정중숙 조점이 최은지 최홍래 이두래 김재호 황희석 김승선 이병선 이영숙 김해원 윤복연 민영인 박종식 윤정수 강필환 강영옥 박종근 박우진 강연옥 박정현 김순애 이계숙 거성실업 김연순 장원주 김인수 하윤숙 강쌍범 이태호 김익민 노영도 김필성 한학조 이항래 양미모 김인호 안규철 하정자 주동강 최은경 이재정 안영호 윤현순 강현성 김옥화 손윤기 전억수 김현주 이희연 김수현 강성진 박현숙 박우찬 심은숙

2011년 5월 김민강 호전종합건설 이춘달 정영숙 안규철 진순옥 하윤숙 황희석 정병하 이홍렬 박정현 최상태 박재홍 이숙이 이미영 김현주 변재범 김순화 박종근 허영형 박현기 노영도 허혜자 김재룡 이상근 이상근 강필환 김철영 김혜숙 강쌍범 정화원 윤지희 안영호 강갑순 정중숙 조정남 최은지 허광도 강순자 김현순 주동강 박주홍 윤숙열 박우찬 홍은정 황기석 김정옥 박종식 김용진 전부근 강규연 이상백 이태호 이병선 강성진 백장홍 동아기업(이우중) 박치훈 남정원 문갑례 홍순화 김태형 이영미 양승원 강연옥 구나윤 강국환 변인섭 김말순 이경순 장원주 김설영 김점식 이성인 김승선 김익민 허미라 온도석 장시경 윤석근 고난조 최영경 한판현 이희연 전경도 강도식 이재정 권옥순 강대균 이영자 류석열 손윤기 윤정수 이계순 하정자 이용성 (유)한국산업 박현숙 박경자 구미자 윤복연 정수향 홍정숙 이두래 홍은정 이상홍 김오수 강덕순 최경녀 정용훈 박선희 이계숙 조점이 윤정향 김성호 백장홍 이미경 최중웅 최윤경 백곡옥 최원옥 성명숙 한학조 김정계 주신옥 김명순 김용호 한선희 김수현 김용주 이복기 이지선 권종영 이우람 거성실업 양미모 김순정 성명숙 정창민 이문희 이화선 김영재 구경서 김주애 김점식 장영수 이한준 이연식 박선자 김중순 원찬섭 박종태 김시달 조지연 최희영 허성란 윤정애 박은정 윤정자 강갑순 박종문 임영연 이창식 유상우 윤정숙 손혜숙 이미옥 이항래 윤상일 남정우 권종영 제금자 강호상 전득근 김귀현 김민자 김용호 김보열 성우근 서도순 최성근 강대균 양채심 공인배 김영완 김화숙 김순찬 박정숙 김보열 김무립 하부영 최인선 정의순 김순화 임화연 최효심 맹길재 김희정 심영란 정정자 정정순 박귀은 김소연 구미자 이용진 노주현 조원익 한명근 이민자 배경조 남태석 김옥화 오유민 박정숙 손혜숙 팽정옥 안중연(한마음치과) 조필준 이승미 이해경 최재섭 박국원 이현숙 김민호 이창훈 김주애 김순권 제성호 조성진 이태현 이승진 박향진 심규나 청호건설(주) 최연익 이영수 온도석 조재영 장형선 조건영 홍세표 황진두 김순점 정귀남 강현성 최홍래 장영수 박정숙 조재경 황순자 조형규 양수미 김계동 강순자 장인옥 민영인 김현석 박보영 윤원준 이수미 박진아 박미영 이우중 김애숙 이상태 서양순 양유경 이미애 정미순 박향진 ㈜동명특수강 이용진 안호순 정성종 이봉자 김주성 황정숙 정지숙 김인호 성왕원 김재호 명정식 팽정옥 남경남 김희정 김주희 김수동 문경련 김수정 김보열 김진환 최재섭 왕한석 김순권 조현수 문상필 윤라미 차기훈 배상림 이웅호 방이호 김순희 정정숙 김옥순 김문기 조성원 조희나 임막순 김해원 한은주 김향숙 김연순 김정재 김인수 김민강 명곡목재 정인숙 이태호 백상호 이도일 조민주 문미경 최인미 전억수 강정덕





2011년 1월~12월 일반후원금(법인)

대각씨앤디 치마저고리 박우진 김금자 최영숙 김순애 김필성 제낙울 황종관 김석연 이순복 김현섭 이무제 심은숙 김선숙 우영숙 김태현 윤현순 김갑연 김양현 한상근 법장사 김무립 김민중 가순출 우태영 최유리 박태순 주경선

2011년 6월 강옥환 배상림 정지숙 허광도 김설영 강갑순 명정식 제성호 이재정 허미라 김진영 문경련 김연순 김현섭 진순옥 손혜숙 조재영 박진아 김경현 권옥순 배경조 남정원 정영숙 장원주 최인선 최영희 조재경 박진중 박현숙 박경자 최상태 박진희 황종관 최홍래 박정숙 온도식 박진중 이용진 최경녀 정용훈 김지혜 황정숙 양미모 윤정수 최성근 김용호 김옥순 이수미 백금옥 최원옥 조민주 류석열 홍정숙 최연익 이순복 권종영 명곡목재 김문기 이복기 이지선 호전종합건설 이춘달 손윤기 이미애 윤정자 백장출 치마저고리 김순권 김영재 구영숙 차기훈 김말순 주신옥 전역수 홍순화 최재섭 황희석 팽정옥 김시달 이병선 박재홍 이숙이 박은정 김인호 김소연 강대균 이무제 정인숙 유상우 강연옥 김재룡 이상근 최인미 김명순 변재범 김민강 박종근 박주홍 김화숙 김의민 이상태 조정남 최은지 김현석 이연식 대각디앤씨 강쌍범 서진호 맹길재 구나운 윤복연 정숙향 이경순 김보열 이영수 김순점 주동강 박우진 한명근 동명특수강 한은주 조점미 이한준 김석연 박보영 박창진 최중웅 김승선 이승미 강성진 김수동 청호건설 고난조 김정재 정미순 김재호 이성인 김영란 이태현 윤숙열 동아기업 거성실업 강문봉 강필환 남정우 김해숙 이상백 강도식 이윤봉 왕한석 황기석 김정옥 윤상일 김현주 원혜정 김태형 이용성 최윤경 홍세표 홍영남 정중숙 제낙울 이재동 안규철 김인수 김점식 원찬섭 (유)한국산업 양수미 홍은정 최영희 박치훈 민영인 서기석 김철영 이희연 이영미 이창식 이우중 장연주 이계숙 윤석근 허해자 김용진 이계순 하정자 이문희 권현옥 정성종 김민호 장시경 김무립 박귀은 최연경 한판현 이상훈 김오수 김재현 김희정 이용호 심규나 정정순 하부영 문갑례 전부근 하윤숙 노주현 조성원 조희원 문상필 김향숙 정정자 김옥화 서도순 이두래 정익순 김종선 김수현 조필준 임막순 박국원 성우근 이미영 김성호 윤원준 이미경 강효상 조원익 안미경 정귀남 이현숙 윤정향 강정덕 정정숙 한선희 황순자 강옥중 최숙자 김보열 윤정애 문미경 김석순 이충림 정창민 공인배 하상개 이영숙 장인옥 이항래 박종식 강순자 박선자 박종문 장형선 이원형 박정현 한학조 장영수 이상근 성영원 박정숙 제금자 임화연 김만식 노영도 남태석 양유경 방이호 김순희 김주애 양채심 임영연 박현기 안웅호 서양순 김수정 오유민 이창훈 성명숙 김순화 안중연(한마음치과) 항행자 박우찬

2011년 7월 강옥환 문경련 김정옥 최연익 김석연 하정자 김오수 김승선 우태영 임막순 김순애 최상태 황정숙 윤정애 오유민 최성근 이희연 임화연 윤정숙 주경선 백상호 김필성 심영란 민영인 김수정 김현섭 이창훈 이상훈 이문희 김민자 박현기 안미경 윤현순 배경조 이영자 황종관 허광도 김정재 이미경 강효상 김순찬 윤지희 이영숙 심은숙 이상태 문미경 김연순 최홍래 김인수 한선희 공인배 김희정 윤숙열 박정현 가순출 구미자 김향숙 청호건설(주) 장원주 안규철 정창민 노주현 이민자 이병선 노영도 우영숙 차기훈 이춘달 이용호 윤정수 강필환 김해숙 안중연(한마음치과) 이혜경 강연옥 안웅호 최유리 호전종합건설 이상근 정지숙 김현석 김현주 김종선 김수현 이송진 김의민 박우찬 김태현 조민주 조정남 이미영 이미애 김성호 박종문 제성호 황진두 이재정 강성진 박태순 박재홍 김말순 이상근 전역수 원혜정 제금자 황순자 김계동 김경현 정유섭 김갑연 김재룡 이숙이 최은지 김인호 강순자 동명특수강 장형선 김애숙 박현숙 구나운 김양현 한은주 이충림 허해자 김용진 강정덕 명정식 박진중 이봉자 최경녀 허미라 한상근 김수동 류석열 박종식 김석순 최연경 조재영 김문기 김주희 이효식 권옥순 법장사 동아기업 조점미 박은정 김명순 문갑례 조재경 박진아 윤라미 백금옥 박경자 김무립 황기석 정숙향 고난조 김순점 변재범 박진중 박우진 김해원 이복기 정용훈 김민중 정중숙 김경재 이경순 이연식 이순복 김옥순 김승선 이도일 김경태 이진선 우태영 윤복연 거성실업 이한준 성영원 진순옥 명곡목재 김선숙 김순애 김시달 구영숙 주경선 이계숙 양유경 손윤기 박보영 신창환 강외순 (유)한국산업 김필성 유상우 윤정숙 임상보 박연순 성우근 홍정숙 정미순 김철영 치마저고리 최윤경 윤현순 김화숙 김민자 장시경 김옥화 양미모 김소연 김유식 이무제 김명란 심은숙 맹길재 김순찬 서양순 이현숙 주신옥 김순희 전부근 황희석 이창식 가순출 한명근 김희정 김보열 윤석근 강문봉 남정우 김설영 박종근 조원익 우영숙 이승미 이민자 박국원 박치훈 윤상일 이두래 홍순화 강쌍범 조필준 최유리 이태현 이혜경 정정자 최인미 이재동 장원주 한판현 주동강 조성진 박태순 이윤봉 황진두 심규나 정정순 윤정향 이영수 정익순 이상백 권현옥 김갑연 홍세표 김계동 정귀남 정영숙 하부영 박정숙 윤원준 이영미 공남이 김양현 양수미 김애숙 장인옥 김무립 박귀은 윤정자 정정숙 이성인 조성원 조희나 한상근 이우중 이봉자 남태석 이항래 서도순 김보열 대각디앤씨 전경도 정숙자 법장사 정성종 김주희 남정원 장영수 김민호 최인선 김재호 이용성 김선숙 김무립 김희정 윤라미 배상림 제낙울 방이호 김점식 김태형 원찬섭 남경남 김민중 문상필 김해원

2011년 8월 홍은정 황기석 청호건설(주) 양미모 안규철 정익순 김점식 전경도 조성진 이태현 이민자 박정숙 이계숙 성우근 오유민 김현주 홍순화 이희연 이용성 조원익 이윤봉 이혜경 강갑순 윤복연 이항래 김인호 강필환 김설영 하정자 원찬섭 이홍열 홍세표 황진두 구미자 서양순 이현숙 전역수 문갑례 정미순 이상훈 김수현 조성원 조희나 양수미 김계동 백장출 장시경 정정순 손윤기 류석열 윤원준 이미경 이문희 공남이 이우중 김애숙 권종영 정중숙 김무립 홍정숙 이두래 한판현 한선희 박진중 김경선 정성종 이봉자 김용호 심규나 김옥화 주신옥 김성호 김유식 정창민 임영연 김선숙 김희정 김주희 온도식 정정자 김수정 하부영 박정숙 정정숙 박종문 임화연 김정숙 문상필 윤라미 최영희 김보열 장영수 방이호 성영원 김재호 제금자 강효상 박우진 임막순 김해원 강대균 정귀남 양유경 최연익 윤정자 강갑순 김종선(제이에스무역) 공인배 박현기 김병호 김순애 손혜숙 박국원 김연순 이미애 이창훈 손혜숙 양채심 노주현 항행자 백상호 김필성 박선자 장인옥 윤정애 강문봉 최성근 백장출 김순화 안중연 윤지희 최숙자 윤현순 최재섭 한학조 정지숙 이재동 최인선 최영희 이용진 제성호 윤숙열 이영숙 심은숙 강옥환 남태석 이용호 윤상일 김순희 권종영 팽정옥 김문기 강연옥 박정현 가순출 성명숙 문미경 황종관 김현섭 이연식 김용호 김순권 박진아 김의민 노영도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1 2011년 1월~12월 일반후원금(법인) 1

우영숙 김주애 황정숙 최인미 허광도 김소연 온도석 이수미 장형선 이재정 안웅호 최유리 심영란 이영자 정영숙 김용진 김순점
 박선자 최중웅 황순자 박현숙 박우찬 박태순 김진영 문경련 이미영 강정덕 남정우 홍은정 명정식 김오수 최경녀 강성진 김갑연
 최상태 남정원 이상근 민영인 박보영 구미자 ㈜동명특수강 이용진 이호석 정유섭 김양현 배경조 배상림 최은지 강현성 장연주
 성명숙 조재영 김순권 백금옥 구나운 한상근 박향진 제나을 김석순 김현석 이영수 박정숙 조재경 이수미 이복기 허미라 법장사
 이상태 이춘달 김명순 서도순 김인수 최재섭 김옥순 팽정옥 김영재 권옥순 김무립 김민강 이상근 박종식 박귀은 원혜정 이충림
 치마저고리 박진중 김시달 박경자 김민중 호전종합건설 박치훈 허혜자 윤정향 강순자 박향진 이무제 최중웅 유상우 정용훈
 우태영 차기훈 김말순 이한준 장원주 변재범 김주애 황희석 박우진 김화숙 이지선 주경선 조민주 김향숙 김민호 윤정수 진순옥
 강대균 박종근 최운경 맹길재 구영숙 임상보 한은주 조정남 박은정 김정재 이순복 대각디앤씨 강쌍범 김영완 한명근 윤정숙
 최문정 김재룡 이숙이 고난조 최연경 김철영 김순화 주동강 강도식 이승미 김민자 조점미 박재홍 윤석근 최홍래 김보열 신창환
 하윤숙 이상백 이창식 김정희 김소찬 정숙향 김수동 김정옥 이경순 김석연 전부근 김태형 송명훈 권현옥 김현주 김희정
 동아기업

2011년 9월 김민강 문경련 정영숙 허광도 최인선 김주애 김순화 김문기 서영문 이복기 허미라 법장사 김진영 박국원 최인미
 김현식 이순복 권중영 (주)동명특수강 황순자 하상개 김영재 권옥순 김무립 심영란 배상림 정정순 김명순 이연식 구미자 명정식
 장형선 이호철 김시달 박경자 김민중 강옥환 김향숙 이현숙 최홍래 김소연 강갑순 조재영 박진아 송외순 유상우 정용훈 우태영
 배경조 정정자 윤정애 윤정수 박보영 박정숙 조재경 이용진 양승원 김화숙 최원옥 주경선 최상태 김보열 이영자 장원주 정미순
 온도석 김옥순 이수미 조성진 맹길재 이지선 임상보 이계순 장인옥 양유경 최연익 김순희 손혜숙 명곡목재 김순권 조필준
 한명근 구영숙 최문정 김정계 남태석 이미영 이미애 이두래 홍은정 황희석 김순선 조원익 이승미 윤정숙 이상태 이춘달 박종식
 최은지 이영수 강대균 치마저고리 이태호 김선숙 김정희 김민자 김수동 이숙이 정지숙 김민호 남정우 김용호 이무제 정숙자
 정숙자 김현주 김소찬 조민주 조정남 이상근 전억수 성영원 최영희 박종근 임영애 이화선 이태현 김희정 한은주 류석열 이용호
 김용진 김성호 대각디앤씨 강쌍범 전득근 김용주 이윤봉 이민자 호전종합건설 이충림 손윤기 김현식 김철영 김유식 주동강
 남정원 김금자 홍세표 이혜경 박재홍 김말순 홍정숙 제나을 신창환 강현성 이상백 최효심 김순선 양수미 이승진 김재룡 문미경
 박은정 김보열 김인수 박향진 이영미 손세림 조성원 조하나 이우중 황진두 차기훈 정숙향 허부영 김정재 원혜정 김소점 전경도
 최운경 이원형 정성중 김계동 황기석 조점미 양미도 김석연 전부근 하윤숙 이용성 김영완 김정숙 김희정 김애숙 정중숙
 청호건설(주) 이경순 최연경 강순자 김점식 원찬섭 서진호 이홍열 문상필 이봉자 장시경 김정옥 고난조 김현주 김설영 김태형
 김수현 이창식 김만식 임막순 윤라미 윤복연 박치훈 강문봉 강필환 홍순화 이희연 이문희 정병하 박우진 백상호 김해원 민영인
 윤석근 이재동 안규철 정익순 하정자 박진중 박종태 박현기 안미경 김순애 (주)동아기업 김연순 윤상일 강정덕 윤원준 이상흠
 김오수 이현순 윤지희 최숙자 김필성 이계숙 허혜자 주신옥 문갑례 한판현 김중선 임영연 박미영 윤숙열 이명숙 윤현순 한학조
 김수정 서도순 이창훈 정정숙 이미경 강효상 조형규 강연옥 박정현 심은숙 구정순 장영수 박귀은 장연주 김민강 한선희 공인배
 안호순 김의민 노영도 가순출 구정순 황종관 윤정향 윤정자 김재호 정창민 임화연 조형규 이재정 안웅호 우영숙 이영자 성우근
 이상근 진순옥 성명숙 박종문 노주현 안호순 김경현 박우찬 최유리 서양순 김옥화 오유민 박정숙 백정홍 제금자 안중언(한마
 음치파) 조건영 박현숙 강성진 박태순 황정숙 이향래 김민호 변재범 박선자 양채심 제성호 권현옥 최경녀 정유섭 김갑연 남정원
 김무립 방이호 최성근 최재섭 하윤숙 왕한석 이호석 구나운 김양현 정귀남 심규나

2011년 10월 최상태 배상림 김연순 윤정수 최성근 박정숙 조재경 이용진 이호석 정유섭 법장사 강옥환 김향숙 정영숙 최홍래
 남정우 박선자 동명특수강 이수미 백금옥 구나운 김무립 이상태 문미경 최인미 김용진 이영수 최영희 명정식 김순권 이복기
 허미라 우태영 김진영 민영인 황종관 서양순 이창훈 김주애 명곡목재 팽정옥 김영재 권옥순 주경선 심영란 김수정 이상근
 김보열 성영원 성명숙 김옥순 정인숙 김시달 박경자 임상보 배경조 장영수 이미영 김민호 김순희 강대균 치마저고리 박주홍
 유상우 정용훈 최문정 이계순 성우근 제나을 김석연 김인수 구미자 이무제 남경남 김화숙 최원옥 (주)동아기업 이상근 심규나
 김정재 원혜정 홍은정 황희석 김영완 맹길재 이지선 김재룡 조정남 박종식 최연익 강정덕 대각디앤씨(주) 박종근 이태호 한명근
 구영숙 한은주 이춘달 박은정 전억수 강순자 최재섭 강쌍범 최운경 이승미 김민자 김수동 이향래 고난조 이미애 남정원
 김순점 주동강 최상길 김현주 김순찬 차기훈 박치훈 양미도 이두래 진순옥 김재호 이영미 권현옥 이태현 김희정 조민주
 김말순 주신옥 최은지 이순복 박향진 이상백 이창식 이윤봉 이민자 호전종합건설 김무립 이경순 안규철 변재범 김태형 전경도
 공남이 홍세표 이혜경 황기석 정정순 손윤기 김성호 신창환 김점식 이용성 김선숙 양수미 황진두 정중숙 김옥화 강문봉
 김현주 김철영 박영옥 원찬섭 정숙자 이우중 김애숙 윤복연 윤석근 윤상일 강필환 전부근 이희연 김오수 조필준 정성중 이봉자
 장시경 이숙이 이재동 홍정숙 이계순 하정자 이문희 조원익 김희정 김주희 김석순 류석열 허부영 문갑례 김설영 이상흠 강효상
 조성진 문상필 윤라미 김보열 이현숙 박귀은 김현식 홍순화 이미경 공인배 박우진 임막순 김해원 박국원 김정옥 윤정향
 최연경 한판현 한선희 임화연 정인숙 김병호 김순애 박재홍 이충림 서도순 김민강 정익순 정창민 노주현 박현기 백상호 김필성
 정정자 정숙향 오유민 윤정자 윤원준 김혜숙 안중언 윤지희 안미경 윤현순 이계숙 조점미 김민호 박보영 정정숙 박종문 김문기
 윤숙열 이명숙 심은숙 정귀남 청호건설(주) 허광도 박정숙 손혜숙 제금자 제성호 강연옥 이호길 가순출 장인옥 이영자 김현섭
 정미순 백정홍 양채심 장형선 김의민 박정현 우영숙 한학조 이용호 김명순 김소연 권중영 김중선 황순자 이재정 노영도 최유리
 황정숙 윤정애 장원주 이연식 강갑순 하윤숙 박진아 김경현 안웅호 박태순 남태석 정지숙 방이호 최인선 온도석 김순화 박진중
 박현숙 박우찬 김갑연 문경련 양유경 장연주 김용호 조재영 김수현 최경녀 강성진 김양현





2011년 1월~12월 일반후원금(법인)

도움주신분들

2011년 11월 강옥환 황정숙 정지숙 최흥래 성양원 최영희 동명특수강 제성호 김시달 정용훈 심영란 이영자 김연순 장원주 최인선 온도석 명정식 김오수 유상우 이지선 김진영 문경련 이영자 박종식 김소연 강대균 조재영 곽진중 김화순 구영숙 배경조 김향숙정영숙 전역수 이연식 김주애 조재경 이용진 맹길재 최상태 배상림 황종관 김인호 박보영 구미자 김옥순 팽정옥 한영근 이상태 문미경 최인미 최연익 장연주 박정숙 명곡목재 김순권 이승미 차기훈 조경남 이미영 최은지 정미순 홍은정 치마저고리 이수미 김현주 조민주 이춘달 이상근 이미애 김인수 성명숙 이무제 송윤희 윤현식 김재룡 이상근 주신옥 강정덕 원혜정 객선자 황희석 남경남 이태현 호전종합건설 김말순 고난조 김현석 김순점 김민강 박종근 최운경 이윤봉 한은주 류석열 하부영 김정재 이순복 대각디앤씨 강쌍범 박주홍 홍세표 박재홍 이종림 이경순 김석연 정의순 박향진 주동강 조성진 양수미 김수동 이숙이 양미모 김보열 변재범 손혜숙 김수현 조원익 이우중 윤복연 조점미 오유민 최연경 진순옥 최재섭 이상백 조필준 정성중 동아기업 정숙향 박은정 강필환 남정원 이계순 전경도 이창식 김희정 황기석 김정옥 홍정숙 김현주 윤원준 김태형 이용성 박종태 문상필 정중숙 윤석근 손윤기 안규철 신창환 김점식 원찬섭 정숙자 임막순 장시경 박치훈 김민호 김석순 김철영 김혜숙 이영미 박우진 백상호 이계숙 청호건설(주) 서도순 문갑래 한판현 이희연 이문희 김선숙 안미경 박연순 김옥화 강문봉 이두래 김설영 하정자 김문기 박현기 이영숙 김범수 정정순 허광도 김성호 전부근 이상희 임영연 윤지희 이호길 박국원 김무립 김무립 이재동 민영인 정정숙 이미경 강효상 윤숙열 박정현 정귀남 이향래 김현섭 제낙울 홍순화 한선희 공인배 김의민 노영도 김보열 이현숙 윤상일 남정우 강순자 정창민 임화연 이재정 안우호 정정자 김수정 김용진 이영수 김지혜 하윤숙 노주현 김경현 박우찬 심규나 성우근 김명순 이창훈 김재호 김중선 안중언(한마음치과) 박현숙 강성진 장인옥 양유경 윤정향 김순희 권종영 박종문 왕한석 최경녀 구나운 구정순 이우호 윤정수 윤정자 백장흠 제금자 박진아 이효석 허미라 남태석 장영수 방이호 박정숙 김용호 양채심 장형선 이복기 권옥순 서양순 윤정애 박귀은 최성근 강갑순 김순화 황순자 김영재 박경자

2011년 12월 강옥환 황정숙 장영수 최은지 이연식 박정숙 명정식 이용진 정숙자 김갑연 양수미 김애숙 김진영 민영인 이상근 최연익 성양원 홍은정 (주)동명특수강 팽정옥 송외순 김양현 이우중 이봉자 심영란 남태석 이우호 이미애 이두래 성명숙 조재영 김순권 이상개 한상근 정성중 김주희 최상태 김향숙 이미영 전역수 정미순 최영희 조재경 이수미 박우진 법장사 김희정 윤라미 배경조 이춘달 정지숙 김인호 김순희 강대균 김옥순 김영완 정병하 김무립 문상필 김해원 이상태 조경남 박종식 김원진 장연주 백장흠 명곡목재 이태호 조현수 우태영 임막순 김순애 김재룡 이상근 주신옥 김보열 김성호 김민강 황희석 안호순 정인숙 주경선 백상호 김필성 한은주 김말순 양미모 김현석 김인수 한판현 치마저고리 안호순 김선숙 임상보 안미경 윤현순 김수동 이숙이 고난조 김석연 김철영 최재섭 이무제 안호순 이태호 최문정 최영숙 심은숙 차기훈 류석열 하부영 김정재 신창환 박향진 박종근 최운경 김민자 박현기 최숙자 가순출 조미주 정숙향 손윤기 김보열 원혜정 박옥림 강쌍범 남경남 김순찬 윤숙열 이영숙 우영숙 호전종합건설 조점미 이경순 강필환 강정덕 김점식 주동강 최효심 김희정 강연옥 이호길 최유리 박재홍 청호건설 홍정숙 안규철 윤상일 김태형 이상백 정병하 이민자 김의민 박정현 김태현 황기석 윤석근 강문봉 김현주 전부근 하정자 이영미 이창식 이혜경 이재정 노영도 박태순 동아기업 박치훈 이재동 허혜자 이계순 신옥현 전경도 이원형 이송진 김경현 안우호 김갑연 장시경 김정옥 이영자 김석순 김철영 장기복 이용성 전판식 황진두 박현숙 박우찬 김양현 정중숙 제낙울 김동섭 최원경 김태성 이상복 원찬섭 김승선 김계동 최경녀 강성진 한상근 윤복연 양유경 서도순 문갑래 김순정 봉림서관음회 김오수 박미영 김애숙 이효석 구나운 법장사 이계숙 강순자 윤정향 심규나 홍순화 김범수 김문기 조형규 이봉자 이복기 허미라 김무립 한학조 김연순 박귀은 이영수 정의순 이상숙 임영연 김주희 김연재 권옥순 김민중 김정계 김무립 박은정 이순복 윤원준 이미경 강효상 조필준 윤라미 김시달 박경자 우태영 강외순 정정순 오유민 최성근 정정숙 정창민 공인배 조원익 김해원 유상우 정용훈 임상보 박경희 성우근 김민호 윤정자 김용진 한선희 임화연 조성진 김순애 김화숙 이지선 최문정 서양순 이향래 김현석 진순옥 김재호 박종문 안중언(한마음치과) 서명문 김필성 맹길재 구영숙 박국원 정영숙 허광도 최인선 강갑순 제금자 왕한석 서진호 윤현순 한명근 윤정숙 정귀남 김옥화 김용진 남정우 권종영 양채심 제성호 이화선 심은숙 이승미 김민자 배상림 최인미 김영순 박정숙 김용호 김중선 노주현 김용주 가철순 김현주 김순찬 정정자 이현숙 윤정수 변재범 온도석 개천우체국장 장형선 양승원 우영숙 윤현식 김희정 문경련 윤정애 방이호 이창훈 객선자 하윤숙 황순자 권현옥 최유리 이태현 이민자 김보열 황종관 최홍래 김소연 김주애 불명 객진중 공남이 김태현 이윤봉 이혜경 장인옥 김수정 장원주 박보영 구미자 추형식 박진아 김금자 박태순 홍세표 황진두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일반후원금(시설)

2011년 1월 ~ 12월 일반후원금내역(시설)

2011년 1월

고은별 김월선(부전식당) 박진한 조경훈 신정식 한행주 조성해 황현숙 해피빈 김동진 조혜자 김해원 이일수 최학용 임화자 남혜정 박연찬 구창국 추광식 허영남 정성청 손영채 안병수 배영림 고은별 이마트단체지원금 봉림사관음회 최승희 양정화 정차효 양선자 박효주 후원금 차춘자 최규현

2011년 2월

심재석 부전식당 양선자 황현숙 주순애 법장사 김동진 박효주 정명숙 무학사(함안) 이현숙 남혜정 오성숙 조현수 봉림사관음회 추광식 대한미용사회 최승희 조혜자 양정화 고성교육청 최학용 조성해 박계라 최규현 진미화 차춘자 박연찬 정차현 이정철 배영림 한행주 김해원 김희정 박진한 조경훈

2011년 3월

서지영 박석구 양선자 박효주 정명숙 김수명 김동진 추광식 고은별 배영림 신길선 최규현 안병수 김희정 여성팔각회(부산) 신영만 최규현 부전식당 조성해 황현숙 주순애 최학용 조혜자 조경훈 박연찬 박순연 윤미행 차춘자 봉림사관음회 진미화 문은순 박진한 강진규 최승희 양정화 김해원 김성겸 한행주 이정철 안병수 박계라 공동모금회 김정수 공동모금회 이상옥

2011년 4월

서지영 봉림사관음회 윤미행 이정철 정차효 최승희 조성해 최규현 이광표 최학용 문은순 차춘자 정명숙 민송식 정혜숙 사랑의어머니회 정차효 진미화 이카트단체지원금 연화사자비회 박연찬 한행주 박효주 강현중 박석구 주순애 조동화 박계라 서부춘 박진한 추광식 공동모금회 배영림 양선자 장시경 김정수 김월선 조혜자 양정화

2011년 5월

김해원 박연찬 이성욱 박진희 서지영 백준호 배영림 안제민 황현숙 고은별 김현주 한행주 봉림사관음회 조경훈 김희정 박진희 안병수 박석구 부전식당 양선자 고영진 정혜숙 최학용 윤미행 정차효 한행주 최승희 이선자 불여사보리수 조세규 민송식 조혜자 이광표 최상중 금강정사신도 조성해 정명숙 박현갑 진미화 문은순 박효주 양정화 김해원 양정화 조동화 이정철 차춘자 김정수 추광식 조경훈 강현중 공동모금회 김동진 황현숙 박계라 공동모금회 정남주

2011년 6월

서지영 정차효 김선주 박효주 박진한 부전식당 김동진 이정철 정명숙 최학용 이선자 조경훈 박연찬 옥영준 조혜자 김해원 박석구 진미화 윤미행 황현숙 정혜숙 최승희 양정화 후원금 봉림사관음회 한행주 조성해 차춘자 이광표 민송식 조동화 김현숙 안병수 양선자 문은순 최규현 배영림 조윤희 추광식 강현중 박계라 양정화 공동모금회 정남주 해인심 김정수

2011년 7월

서지영 안병수 양선자 박효주 정명숙 이광표 조성해 양정화 봉림사관음회 최승희 조혜자 이정철 대한지적공사 최학용 윤미행 차춘자 박석구 옥영준 이선자 경남사회복지 박연찬 고은별 조윤희 이마트단체지원금 박석구 진미화 박진한 최규현 이병혁 한행주 문은순 강현중 정혜숙 남정기업 조동화 박계라 배영림 남현민 추광식 김정수 해인심 공동모금회 정남주





일반후원금(시설)



2011년 1월 ~ 12월 일반후원금내역(시설)

2011년 8월

김해원 봉림사관음회 최학용 조윤희 황현숙 박연찬 최승희 조성해 서지영 박석구 옥영준 이선자 조경훈 박석구 진미화 윤미행 후원금 이병혁 한행주 문은순 정명숙 정혜숙 남정민송식 차춘자 정치효 박진숙 박진한 조동화 정치효 아이러브피플 양선자 박효주 이광표 안병수 이해란 추광식 남현민 배영림 조혜자 양정화 이정철 최규현 강현중 정남주 황현숙 조경훈 박계라 양정화 후원금 김해원 김정수

2011년 9월

서지영 여태전 서부춘 진미화 이광표 박석구 배청자 양선자 정명숙 박연찬 최근철 박진한 삼정자초등학교 한원희 박복돌 윤미행 고성교육지원청 보라미동우회 한행주 조성해 백합로타리 안병수 최학용 조윤희 봉림사관음회 박석구 최승희 이선자 코벤 정혜숙 옥영준 추광식 하상필 이병혁 남정기업 문은순 고성소방서 배영림 고은별 조동화 박효주 최규현 김해원 강현중 차춘자 임화자 후원금 박계라 정치효 조경훈 허영남 공동모금회 양정화 조혜자 LIG 김정수 이정철 황현숙 정남주 해인심 공동모금회

2011년 10월

서지영 안병수 옥천사 박순례 정명숙 배영림 봉림사관음회 양선자 정치효 최학용 봉림사관음회 조윤희 강미석 옥영준 박일선 이선자 박석구 서부춘 하상필 조성해 박석구 최승희 개천면체육회 윤미행 이병혁 진미화 김호준(명장) 조혜자 박연찬 한행주 왕한석 문은순 정혜숙 남정기업 나눔의향기 이마트단체 아이러브피플 창원교도소 불여사 조동화 박효주 이정철 후원금 고성군수 추광식 황현숙 차춘자 박계라 교육과정과 조경훈 최규현 김정수 양정화 김해원 강현중 공동모금회 정남주

2011년 11월

서지영 안병수 윤미행 봉림사관음회 박진한 최학용 이선자 박순례 정명숙 옥영준 조혜자 양정화 아이러브피플 최승희 조윤희 박효주 박연찬 진미화 조성해 조동화 박석구 한행주 문은순 추광식 정혜숙 박진한 아동보호전문기관(경남) 이정철 배영림 남정기업 공상민 조경훈 서부춘 창원교도소 송동배 황현숙 정치효 양선자 케이티링커스 김해원 후원금 강현중 해인심 공동모금회 차춘자 박계라 김정수 정남주 최규현

2011년 12월

서지영 서부춘 창원교보라미 조혜자 정명숙 정치효 양선자 조성해 박연찬 한행주 노주섭 문은순 덕은테크 최학용 삼정자운영위원회 박효주 아이러브피플 최승희 삼정자초등학교 조동화 박석구 옥영준 김기은(삼정자) 추광식 정혜숙 안병수 고은별 최규현 김철현 강덕경 이선자 양정화 배영림 대한지적공사 윤미행 이정철 대한미용사회 진미화 조윤희 경동안현영 경남도청노동조합 이형숙 TOM 강현중 하상필, 하창식 박순례 조경훈 박계라 창원문성대학 정치효 황현숙 해인심 강홍석 차춘자 후원금 김정수 불여사 정남주 공동모금회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결연후원금내역

2011년 1월 ~ 12월 결연후원금 내역(아동 결연후원자)(시설)

강옥환: 민병준, 민수빈, 김인왕, 김인제제,
김인시후, 오슬기
강승규: 김백천
강옥자: 박정민
강성길: 박지우
김형수: 김 신
김흥구: 박정민, 서희원(퇴소)
김수희: 최민서
김경미: 이정현, 신영미
김인순: 박경주
김양연: 정진미
김외경: 박민승, 박유영, 신경이
김문례: 석동인
김봉환: 김동천
김주열: 김영천
김영숙: 유승영
권효상: 이택겸, 이청란
권현자: 최민서
공우상: 김동천
곽진희: 장운영
남정우: 오슬기
노동희: 양진우
노유란: 최민서
도선중: 임정재, 한승민
박명연, 박정하, 박순자: 박지우, 박사훈
박명주: 김효림
박민서: 유관중, 이정현
박국원: 이동훈(퇴소)
박정민: 박민승
박순자: 박사훈, 박지우
성순남: 박사훈, 김 신, 김철영
성철경: 박정민
서정하: 박익렬, 박경주
서부춘: 박익렬
손진일: 박지우
손진우: 신영주
송준영: 임정재
신증섭: 장운영
신태한: 신민규
안성호: 박지원

안정애: 이은미
양순자: 김백천, 김영천
유화진: 김철영
옥영준: 전주영
원종운: 한승민
염선면: 석동인
윤다혜: 유관중
이동근: 백인석(퇴소)
이영빈: 김백천
이정화: 김철영
이화옥: 김 신, 김철영, 신영주
이희옥: 배희승
이관용: 임정재
이숙진: 안덕현
이선제: 황경선
장익렬: 이기소
장원석: 석원진
장현진: 박지환, 전주영
정수경: 백인한, 백인석
정유섭: 황재균
조규열: 신영주
하정숙: 정다운, 신민규, 김효림, 박유영
하우순: 박익렬, 김영천
하린영: 박지환
하충훈: 박지우
황경수: 신민규, 김광일(퇴소)
황희영: 유승민

남정기업 : 민수빈
신아정밀(주): 김성환
삼성테크원: 김광석, 김원영, 이정현,
김형택
어린이재단: 석동인, 박사훈, 이수현,
한승민, 김동천, 황재균





물품후원자명단



2011년 1월 ~ 12월 물품후원

1월

관음사, 삼천포미용봉사, 문병식, 김민자, 수양모델, 한독약국(고려당), 최명희·염용하, 작은사랑, 윤덕점, 나눔의 향기, 송병욱, 동명한의원, 서희원연고자, 강숙이·손금옥, 푸드뱅크, 박상범, (주)가야출판산업, 박문수, 이옥자, 전성애외 1명, 정점숙, 강태화, 김미선(전북), 우산반점(고성), 보리수회(창원), 법우회, 구미보천사(전주영연고자), 국민생활체육회, 원덕사, 원동부녀회, 보련회(영양사), 함안무학사, 마산스마일봉사단, 윤정남, 최관경, 김미선(경기), 제필순, 윤정남, 대한양돈협회, 최홍래, 외환은행(진주), 최상숙·이우종, 삼정자초등학교, 진주안경원(양정훈), 고성군의회, 고성군청, 장성식, 한미아크릴, 성동조선, 생활선언, 개천면(바르게살기운동), 창원교도소, 수효원

2월

김병천, 작은사랑, 청연암, 불여사, 한마음약국(진주), 김상진, 최대석, 구미보천사(전주영연고자), 선광사, 동명한의원, 한독약국, 고려당, 법장사, 윤덕점, 신우회, 영농식육점, 김현수(무학사), 배영수, 박태경, 전성애외 1명, 장성식, 이옥자, 통영연화사, 이정화복지사, 김점연, 소원성취사, 푸드뱅크, 선문사, 해명보육원, 영천FC, 최선림(구만), 송학관, 보련회(영양사회), 송림탕(진주)

3월

동명한의원, 봉림사관음회(창원), 수학학습지도 선생님(진주), 강숙이, 손금옥, 울대리(고성) 불명, 상영희망 장학재단, 작은사랑, 김지인복지사, 김두선, 오원숙, 향도여성팔각회, 개천초등학교, 창원문성대(사회복지과), 최선림(구만), 전성애외 1명, 보리수회(창원), 이옥자, 구순연, 푸드뱅크, 경남통일농업협력회, 서봉암(사천), 신영만, 강설인, 윤덕점 봉사자 모임, 보련회(영양사회), 김현수(무학사), 강경숙, 이태용(진해), 윤정남, 윤미행, 행복하세요(KST명상)

4월

최근철, 신우회, 하영도, 허영미, 박정민 연고자, 안정애, 아동연합회, 우현숙, 이정화복지사, 한독약국, 고려당, 푸드뱅크, 윤덕점 봉사단, 강숙이, 손금옥, 박태봉, 이옥자, 전성애외 1명, 황홍점 복지사, 명주형 고모님, 틈새사랑, 우현숙, 보련회(영양사회), 함안무학사, 백순이, 눈높이(고성지부), 동명한의원, 우산반점(고성), 가람토목건축사무소, 대한양돈협회, 연화사, 행복하세요(KST명상)

5월

봉림사관음회(창원), 우서영(생곡마을), 장성식, 김준식, 강숙이, 손금옥, 동명한의원, 최을림, 최상숙, 이우종, 고영진, 최명희, 염용하, 외환은행(진주), 무주사(삼휴스님), 반야사, 배석만, 아트어린이집(이세영), 관음사(마산 김부련), 옥천사 주지스님, 두산중공업, 김기현, 이승용, 최근철, 이정화복지사, 푸드뱅크, 정명숙, 백순이, 김정숙(문산), 윤덕점 봉사단, 한독약국, 고려당, 김미정, 윤강호, 작은사랑, 전성애외 1명, 이옥자, 김영석, 금강정사, 영천FC, 김인왕연고자, 한국전력(고성지점), 윤정남, 최상숙, 이우종, 함안 무학사, 보련회(영양사회), 정토만일회, 우산반점(고성), 영농식육점, 김말순, 보리수회(창원), 임윤영, 김보수

6월

푸드뱅크, 강남라이온스클럽(진주), 문병식, 신우회, 최선림(구만), 임돌아, 불명, 시민봉사여단, 강숙이, 손금옥, 한독약국, 고려당, 동명한의원, 무주사(삼휴스님), 대광명사(부산), 틈새사랑, 전성애외 1명, 이옥자, 경남서로봉사단, 남정기업, 하주사, 함안무학사, 이성주, 강삼옥, 배석만, 윤덕점 봉사단, (주)엠케이글로벌

7월

김준식, 삼별회, 틈새사랑, 강숙이, 손금옥, 한독약국, 고려당, 동명한의원, 청연암, 작은사랑, 창원문성대학(사회복지과), 한아름꽃집, 김지인복지사, 과수사랑회, 푸드뱅크, 우산반점(고성), 최우석, 전성애외 1명, 이옥자, 함안무학사, 정선옥,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2011년 1월 ~ 12월 물품후원

권인숙(농산물30번), 전중택, 함안군수부인, 적민스님, 조선례, 김덕효, 천호정갈비, 배석만, 보련회(영양사회), 보리수회
김영내, 영천FC, 김해학부모, 경남사회복지사모임, 진주장미라이온스, 은덕암(고성), 명주영연고자(고모), 새고성로타리,
우대식(창원), 이영빈복지사

8월

축협(고성후원자), 김해FC, 최명희, 염용하, 김지인복지사, 불명, 아트어린이집(이세영), 동명한의원, 한독약국, 고려당,
이정화복지사, 푸드뱅크, 강숙이, 손금옥, 정용희, 강설인, 틈새사랑, 통영불교교양대학, 황흥점복지사, 보리수회(창원),
이옥자, 전옥기, 정의순, 함안무학사, 삼성카드, 한영선, 김경숙(윤덕점 중식봉사팀), 김정희, 박정민(나향회원), 김선주,
보련회(영양사회), 우산반점(고성), 나눔의향기, GS생활, 경남도교육청

9월

한독약국, 고려당, 법우회, 푸드뱅크, 최명희, 염용하, 경남도교육청, 동명한의원, 봉림사관음회(창원), 관음사(마산 김부련),
윤덕점 봉사단, 최은정, 경남은행, 신태한(일신스님), 개천면 새마을협회, 삼정자초등학교, 고성군의회, 고성군청, 한국한전
(고성지점), 아트어린이집(이세영), 고성소방서, 외환은행(진주), 화력발전소(삼천포), 보리수회(창원), 틈새사랑, 박경열,
최상숙, 이우중, 최을림, 성동조선, 강숙이, 손금옥, 한국전력멘토, 창원교도소, 천호정갈비, 고성우체국, 정차효, 한마음선원,
조만진, 김정순, 작은사랑, 이일수, 김상진, 허철용, 구룡사(사천), 최근철, 생활선원, 전성애외 1명, 이옥자, 고성상록수회,
삼성카드, 김집, 이은희, 정동영, 박복돌, 김종근, 배석만, 함안무학사, 조희덕, 강석만, 윤정남, 보련회, 용화사, 송창숙(창원
문성대), 고성군보건소, 개천면사무소

10월

신우회, 틈새사랑, 우산반점(고성), 푸드뱅크, 아트어린이집(이세영), 김종근, 동명한의원, 동산식품(김진호), 보리수회(창원),
호국정각사, 나눔의향기, 법우회, 총림사, 오원숙, 김지인복지사, 강숙이, 손금옥, 이정화복지사, 김갑연, 전성애외 1명,
이옥자, 김말순, 김말순, 함안무학사, 삼성카드, 정명숙, 황은숙, 박효주, 송유영, 박태중, 차인회(고성),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권현옥

11월

영농식육점, 개천적십자회(부회장), 황흥점복지사, 적민스님, 동명한의원, 김봉근(장수한의원), 노유란복지사, 최선림(구만),
봉림사관음회(창원), 관음사(마산김부련), 이종재, 푸드뱅크, 한독약국, 고려당, 강숙이, 손금옥, 우산반점(고성), 강설인,
김지인복지사, 작은사랑, 최근철, 윤덕점 봉사단, 차상철, 명주형고모님, 함안무학사, 삼성카드, 최상락, 이정화복지사,
한국전력(고성지점), 전성애외 1명, 틈새사랑, 정선옥, 불명, 윤정남, 백순이, 보련회(영양사회), 정명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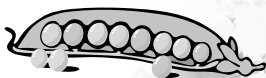
12월

축구와등불, 동그라미(김종원), 박상범, 박효주, 이종수이사, 정명숙, 틈새사랑, 성주사, 심애경, 김지인복지사, 백승옥,
송병옥, 한독약국, 고려당, 박철우지인, 이정화복지사, 푸드뱅크, 강동석, 김무영, 동명한의원, 소원성취사, 박효주, 윤덕점
봉사단, 다솜회, 이은미연고자, 고성가족상담소, 이경학, 우산반점(고성), 마산골프라이온스클럽, 좌연회관, 한국전력
(고성지점), 최상숙, 이우중, 농촌공부방, 더큰병원, 윤현식, 삼정자초등학교, 성윤선(성윤강), 영천중학교, 강설인, 강숙이,
손금옥, 삼성카드, 경남아동연합협회, 고성신문사, 손성옥, 대각씨엔씨, 법우회, 보리수회(창원), 불여사, 최대석, 최을림,
함안무학사, 백순이, 정해권, 최명희, 염용하, 경남도청(공무원조합), 대한양돈협회, 동남지방통계청(통영), 이봉자(최재봉),
김태연, 동양마트(마산), 정선옥





나눔의 행복



1. 해피빈으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세요~

♡ 해피빈이란?

해피빈은 3,500만 네티즌과 공익 단체, 후원파트너가 함께하고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부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 해피로그란?

해피빈에서 지원하는 공익단체들의 블로그입니다.

♡ 콩이란?

콩은 온라인 기부아이템을 뜻하며,
콩 1개 = 100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 콩 모으는 방법은?

첫째, 네이버에서 콩메일을 쓰세요. 매일 한 통으로 콩 1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달에 최대 10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네이버 지식in 답변하기에 참여하고 콩을 모읍니다.
셋째, 네이버와 해피빈 곳곳에 있는 콩 배너를 클릭하고 콩을 받습니다.
넷째, 매달 15일 해피빈 기부day에 참여하고 콩을 받습니다.
다섯, 카드 포인트(BC카드 포인트, KB카드 포인트)를 콩으로 바꿉니다.
(100포인트 = 콩 1개)
여섯, 소액이라도 내가 가진 현금, 네이버 코인으로 콩을 충전합니다.
(100원 = 콩 1개)

♡ 참여 방법은?

첫째, 콩 모으기

네이버(www.naver.com) 로그인 ... 다양한 방법을 통해 콩 모으기 (자신이 보유한 콩에 대한 정보는 MY 해피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둘째, 콩 기부하기

보리수동산2010 가기 (해피빈 검색창에서 '보리수동산' 검색) ... 보리수동산 2010 해피로그 ... 메인화면 왼쪽 상단에 '기부하기' 클릭

보리수동산 후원금은 여러 가지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지원되어 거주하는 아동들에게 모두 다양한 문화 체험 및 폭 넓은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쓰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시 해피빈에서 소득 공제의 혜택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선물받은 콩을 기부하셨을 경우, 결제를 통해 충전콩을 선물하신 분께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며, 후원캠페인을 통해 받은 콩으로 기부하신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나눔의 행복

2. 이마트에서 물건 구매 후 보리수동산에 마일리지를 쌓아주세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구매 시 영수증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저희 보리수동산에 마일리지를 쌓아주세요~
마트에서 필요하신 물품도 구매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도 보내실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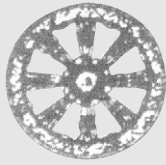
♡ 이마트에서 지역단체 마일리지 적립 방법

첫째, 이마트 엘리베이터 옆에 배치된 무인적립기에 갑니다,
둘째, 화면에서 '지역단체 마일리지' ...> '보리수동산 지정번호(진주:239, 마산:5)' 클릭
셋째, 화면 아래 바코드 인지 면에 영수증 맨 끝에 있는 바코드를 갖다 대세요,
넷째, 마지막으로 '확인' 을 누르시면 끝~

지점명	기관명	지정번호	연락처
마산 이마트	정토만일회	005	055-711-1234
진주 이마트	보리수동산	239	055-749-1234

♡ 지역단체 마일리지 적립을 깜빡하고 잊으셨을 경우, 경남 고성군 옥천사내 청련암이나 보리수동산으로 영수증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 분기별로 영수증으로 모아서 마산과 진주에 있는 이마트에 적립해서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옥천사

청련암

정토만일봉사회

회장 강미석

638-980 경남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408

전화 : (055) 672-0078 팩스 : (055) 672-1308

사랑과 꿈을 나르는 보리수회

회장 변점용

창원시 소담동 105-1 송백해피빌 202호

휴대전화 : 011-871-3033

한마음치과

원장 안중언

경남 진주시 상대2동 303-62
☎055-762-2875

변재범 변호사 법률사무소

경남 창원시 사파동 124-11호
영창빌딩 2층
☎055-264-0390~1

BK건설주식회사

전기/정보통신/기계설비/전문소방
대표이사 이충희
경남 창원시 명서동 104-1 KT서창원지점 4층
☎055-237-7801~3

(유)대보

대표 박문순

경남 마산시 봉암동 376-6
☎256-0733

서진호 의원

경남 고성군 영오면 오서리 1611-202
☎673-1977

이상흠이비인후과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271-4번지
자산빌딩 2층
☎674-7933

권현옥 산부인과

경남 진주시 신안동 582-1 경남은행2층
☎743-7567

이일수
(순환기내과 과장/전문의 의학박사)
창원파티마병원
경남 창원시 명서동 212
☎270-1253

대한지적공사

울산 경상남도 본부
고성군지사
☎673-3539

(주)두산중공업

큰사랑회·법우회
봉사단체

국제 로타리3720지구
창원성산로타리클럽

株式會社日光電氣建設

사장 김선일
진주시 상평동 203-3번지
☎755-7766, 011-583-6632

진주동방치과

경남 진주시 대안동 12-10번지
☎055-747-5500

the큰병원

원장 김경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17번길 10(명서동)
☎055-2700-800

개천초등학교

교장 최상태
경남 고성군 개천면 명성리 옥천로 1268
☎055-672-0010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국제 로타리3590지구 진주축석 로타리클럽 경남 진주시 봉곡동 23-13 ☎055-749-2468	개 천 된 장 김향숙, 탁동열 경남 고성군 개천면 좌연리 518 E-mail : gcdj@naver.com ☎055-672-5459, 011-9332-3500	(주) 동명특수강 대표 이 성 갑 경남 진주시 상평동 158-20 ☎055-753-8822~3, 762-3344~5 취급품목 : 탄소강, 합금강, 공구강, 마한봉
진주작은사랑 인터넷동호회 daum.net/love4i 봉사단체	학우문구센타(창원점) 대표 노 동 휘 경남 창원시 사파동 119-12 ☎267-9799	프로스팩스 박 상 범 김해시 안동 360-1 국제상사물류센타 ☎016-551-6024
무 학 사 학봉스님 경남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 산50 ☎583-2113	부산 이옥자님 미용봉사단체 회원일동	동그라미회 총무 김 중 원 ☎011-9503-0755
국립진주산업대학교 부설 청담사상연구소 소장 허 익 구 경남 진주시 칠암동 150번지 ☎751-3699	불교와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들 회원일동	천사미용봉사단 회원일동
(주) 세 창 약 기 대표이사 최 호 진 경남 마산시 진북면 정현리 1030-1번지 Tel 055-271-6881~4, Fax 055-271-4186	보련회 (영양사모임) 중식봉사단체 회원일동	변호사 손양곤 법률사무소 경남 진주시 상대동 296-91 ☎055-762-8866
제증당한의원 한의사 이 병 조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828-9번지 ☎055-672-3689	동 명 한 의 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동 2980-19번지 ☎031-732-0772	Beautiplex 뷰티플렉스 대표 강 숙 이 경남 마산시 월남동 5가 4-8번지 ☎055-245-8743
자동차/화재/자금대출/적금/연금 LG화재 도동영업소 대리점 대표 김 점 연 경남 진주시 평안동 168(구.나포리예식장3층) ☎747-8474, 8475	이엠코리아(주) 경남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398-3번지 ☎055-582-6221	 황토 락 방앗간 이 화 옥 경남 창원시 대동황토방 상가지하 104호 ☎264-9490, 267-8521, 019-271-9490
 경남은행 경상대병원지점 지점장 윤 갑 수 경남 진주시 칠암동 90번지 ☎758-6497	반 성 주 유 소 하 창 식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 477번지 ☎758-8817, 016-586-8817	 韓國精密器械株式會社 대표이사 하 종 식 경남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1475-4 ☎582-7871~5, 582-2153~5
문 수 암 법광스님 경남 고성군 상리면 무선리 134번지 ☎672-8078	KEB  진주외환은행 경남 진주시 동성동 5-7번지 ☎055-743-1015	장수한의원 (구)장수당건재 원 장 김 봉 근 마산시 회원2동 578-13번지 ☎248-1997, 248-0855





보 현 사 월전스님 경남 고성군 하일면 수양리산1-2번지 ☎673-1192	봉 립 사 운남스님 경남 창원시 봉림동 산139-9 ☎237-2266	불 곡 사 도홍스님 경남 창원시 대방동 1036 ☎282-7402	세 월 암 천우스님 경남 마산시 예곡동 산42-1(불영산) ☎055-221-7730
성 주 사 원정스님 경남 창원시 성주동 102 ☎262-0208	여 여 정 사 정여스님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리 1058 ☎355-9290	선 광 사 성운스님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산8-32번지 ☎051-302-5657	옥 천 사 진성스님 경남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408 ☎672-0100
남정기업 대표 민 송 식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157 ☎055-672-4703	창원봉림사관음회 회장 최 창 우 경남 창원시 봉림동 산139-9 ☎018-560-5515	칠 불 사 통광스님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1605 ☎883-1869	고성 우산반점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 1-6번지 ☎055-672-8813
화 방 사 법광스님 경남 고령군 대곡리 1448번지 ☎863-5011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혜근스님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번지 ☎744-1321	연 화 사 도법스님 경남 통영시 미수2동 44-1 ☎645-6683	천지선원 보운스님 경남 진주시 상봉서동 1235-2 ☎742-0511
사천달마사 해일스님 경남 사천시 사천읍 정외리 172 ☎852-3355	정 인 사 원행스님 경남 마산시 양덕1동 41-2 ☎256-5450	미 래 사 여진스님 경남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233 ☎645-5324	법 료 사 경남 통영시 태평동 368-1 ☎645-5430
한국제강 대표 하 성 식 경남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1365번지 ☎582-6800	신우회 특식 봉사회원 일동 ☎010-7440-7900	마산가고파 로타리클럽 총무 최 정 호 ☎010-3778-8595	부산 생활선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8동 1049-2번지 ☎051-852-009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 고성군 고성읍 외외리 331-4 ☎055-674-6050	진주안경원 부산정보대 안경광학과 겸임교수 대표 양정훈 ☎055-753-9555	창원삼정자초등학교 교 장 함 기 호 경남 창원시 삼정자동 484-1 ☎055-264-2362	나눔의 향기 회장 조용호님의 회원일동
과수사랑회 교육봉사단체 회장 오원숙님의 회원일동	한국산업 경남 창원시 상남동 23-7번지 토토스빌딩 12층	가마골숯불촌 대표 윤 중 갑 경남 창원시 가음정 본동 520 ☎282-8100	영농식육점 대표 박 범 기 경남 사천시 정외리 389(시장통내) ☎852-0621
개천우체국 국 장 정 종 필 경남 고성군 개천면 명성리 625 ☎672-0001	죽 립 사 자문스님 ☎834-3254	백 운 암 지정스님 ☎852-3226	관 음 사 명전스님 경남 진주시 일반성면 장촌리 630번지 ☎754-6355
국 관 사 보련스님 경남 사천시 정동면 수청리 산12 ☎852-1049	금 강 사 성원스님 경남 거제시 신현동 수월리 216 ☎636-8634	모 충 사 백산스님 경남 사천시 송포동 산140 ☎055-834-3450	무 주 사 랑천스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3동 275-543 17동3번 반송빌라 ☎051)532-6563
미 립 암 정연스님 경남 진주시 가좌동 326번지 ☎759-8243	보 광 사 도홍스님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369 ☎674-2864	연 공 방 대표 최 은 경 ☎010-8542-5936	창원 삼성카드 총무 허재현님의 봉사회원 일동 ☎010-2535-5680
마산교도소 불심회 회원일동	연화 교사 불자회 회장 최명림	호전종합건설 <small>토목시설물 건설업</small> 대 표 류 주 열 경남 고성군 영현면 연화리 973-5 ☎055-674-0294/010-9512-4717	강 원 물 류 대표 노주현



법인 및 시설 세입 세출 예·결산 보고

1. 사회복지법인 정토만일회

(단위 : 원)

2011년도 결산서				2012년도 예산서			
세 입		세 출		세 입		세 출	
재산수입	1,200,000	사무비	1,045,150	재산수입	1,220,000	사무비	50,000,000
후원금수입	93,582,035	재산조성비	0	후원금수입	92,500,000	재산조성비	185,020,000
		사업비	330,000	이월금	326,600,000	사업비	70,500,000
이월금	356,064,500	시설전출금	85,000,000	예금이자수입	9,500,000	시설전출금	99,300,000
예금이자	8,432,192	잡지출	6,150	잡수입		잡지출	5,000,000
		차년도이월금	372,897,427			예비비	20,000,000
계	459,278,727	계	459,278,427	계	429,820,000	계	429,820,000

2. 사회복지시설 보리수동산

(단위 : 원)

2011년도 결산서				2012년도 예산서			
세 입		세 출		세 입		세 출	
보조금수입	972,856,960	사무비	829,127,390	보조금수입	987,979,920	사무비	879,809,320
후원금수입	57,151,894	재산조성비	55,999,250	후원금수입	50,000,000	재산조성비	68,100,000
법인전입금	85,000,000	사업비	147,182,893	법인전입금	99,300,000	사업비	148,818,425
이월금	25,772,691	교육비	39,913,740	이월금	36,430,000	교육비	45,082,175
예금이자	70,648	프로그램사업	31,430,400	예금이자	100,000	프로그램사업	37,450,000
잡수입	7,452,010	잡지출	1,336,010	잡수입	9,000,000	잡지출	1,550,000
		차년도이월금	43,314,520			예비비	2,000,000
계	1,148,304,203	계	1,148,304,203	계	1,182,809,920	계	1,182,809,920



「사랑의 후원 보내기」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씨앗이 되어 큰 나무가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보시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작은 나눔으로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후원자가 되어 주세요.

「후원안내」

- ♥ 후원금에 대하여 연말 정산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후원금은 전화나 팩스 또는 편지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 후원금은 꿈을 키워가는 보리수동산 어린이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쓰여집니다.

1. 무통장입금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농협	: 827089-56-006691	예금주 : 강옥환(정토만일회)
법인후원계좌	우체국	: 612564-01-000652 예금주 : 정토만일회
	경남은행	: 525-07-0087863 예금주 : 정토만일회보리수동산
시설후원계좌	농협	: 351-0053-7132-63 예금주 : 보리수동산
	우체국	: 612564-01-001104 예금주 : 보리수동산
	경남은행	: 522-07-0084675 예금주 : 보리수동산강옥환

2. 은행간 자동이체

거래은행에서 위 은행으로 계좌간 이체 신청을 하여 원하는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후원하는 제도입니다

※ 거래금융기관에 직접 신청

3. 지로입금

본 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후원신청서 및 지로를 보내드리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서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4. CMS 자동이체 신청

보리수동산 055)673-5321번으로 전화하시어 CMS후원신청에 필요한 몇가지 정보를 담당직원에게 알려주시면 보리수동산 정기 후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물품후원을 기다립니다」

생필품, 의류, 책, 참고서, 신발, TV

「보리수 동산은....」

보리수동산은 국민생활기초수급자 만 18세이하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양육 시설입니다. 우리의 아동이 부양 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방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복지시설로 문의해 주십시오. 세기를 나아가야 할 아동들이 불우하고 위험한 환경에 더 노출되지 않고 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원장님 이하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초록연꽃

발행처 : 보리수동산

발행인 : 승욱 스님

편집위원 : 박말선 · 이영빈



보리수동산을 후원해 주신 업체를 소개합니다

용 하 한 의 원

네명의 전문한의사 원장님이 공동으로 진료하고 연구하여 더 나은 치료효과를 발휘하도록 항상 연구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치료경험을 바탕으로 연구하는 한의원, 환자가 중심이 되고 환자를 존중하고 환자에게 편안함과 행복을 주는 한의원,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 줄 아는 한의원이 되도록 저희 용하한의원 일가족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용하한의원의 3단계 특수치료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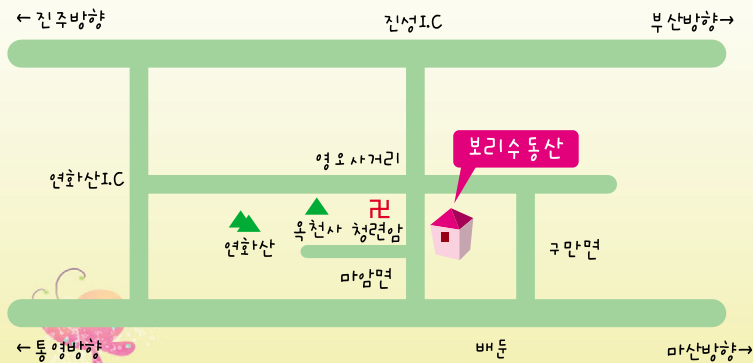
- 1단계 : 혈액정화
- 2단계 : 오장육부 기능조절
- 3단계 : 면역력 강화

용하한의원의 전문클리닉

- 1.중풍예방클리닉 2.여성클리닉 3.과민성대장클리닉
- 4.회복클리닉 5.만성피로클리닉 6.척추관절클리닉
- 7.한방피부클리닉 8.간해독클리닉 9.간질클리닉
- 10.알러지클리닉 11.수험생클리닉 12.스트레스클리닉



경남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625-1(상공회의소 계량중학교 뒤편)
TEL : (055) 633-3114



사회복지법인 정토만일회 보리수동산

638-982 경남 고성군 개천면 좌연리 633-1번지
전화 : (055) 673-5321 팩스 : (055) 673-5347
홈페이지 www.borisudongsan.or.kr